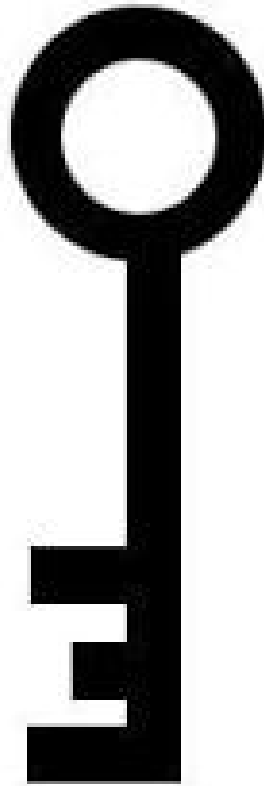


‘누군가 네게 역류로 다가온다면 너는 순류를 유지하라.
너의 순류가 그 사람의 역류가 된다.’
- ‘미생’ 中



박광일의 [SECRET KEY]

고민하는
Point

[6월 평가원 대비 한수 모의고사 주요 문항 분석지(1회)]

#Chapter 1. 오답률 Best 5, “선택지 판단” 집중 분석

[참고] 이 문항들은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자, 동시에 학생들이 공부함에 있어 의미가 있는 문항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사실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은 낯선 문제를 보며 문제 풀이의 감을 유지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모의고사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얻어간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도 문항이라 함은 학생 개별마다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틀린 것과 대응하기보다는 이 ‘모의고사에서 이런 점을 얻어가야 하는구나.’ 정도의 생각으로 이 분석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오답률 예측 | | 해당 문항 | | 매력적 오답 |
|--------|------|-------|-----------------------------|----------|
| 오답률 5위 | 약55% | 15번 | (문법) - 중세국어의 높임법 | ⑤번 선지 |
| 오답률 4위 | 약61% | 34번 | (문학-고전시가) - 글의 세부 내용 이해 | ①번 선지 |
| 오답률 3위 | 약68% | 11번 | (문법) - 비통사적 합성어와 통사적 합성어 | ①번 선지 |
| 오답률 2위 | 약70% | 17번 | (독서 경제) - 글의 세부 내용 이해 | ③, ④번 선지 |
| 오답률 1위 | 약72% | 40번 | (독서 과학) - 글의 세부 내용 이해 | ③번 선지 |

[문학] 현대소설 : 이청준, ‘눈길’ / 고전시가 : 조우인, ‘출새곡’

[문법] 11번, 12번, 15번

[독서] 사회 지문 : 사회적 할인을

#Chapter 2. ‘영역 별 주요 지문’ 집중 분석 참고

[오답률 5위(55%) 예측] : 문법 15번 문항

| [적절하지 않은 선지 판단][Killer Point] | |
|-------------------------------|---|
| ⑤ | (마): 주체와 객체를 높이기 위해 각각 선어말 어미 '-시-'와 '-술-'이 쓰였다. |
| [Killer-Point] | <p>설명문이 없는 고전문법 문제가 출제된다면 핵심은 현대어 풀이와 예문을 대응시키는 것이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마) ㅉ이 부터를 講ᄃᆞᆫ스ᄃᆞᆫ쇼셔 (왕이 부처를 청하십시오)</p> </div> <p>(마)의 현대어 풀이를 보면 상대 높임인 '하십시오'만 사용되었을 뿐 주체 높임은 사용되지 않았다. 즉 고전 문법을 정확히 몰랐다 할지라도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야 한다.</p> |

| [적절한 선지(정답 선지) 판단] | |
|--------------------|---|
| ④ | (라): '부텃'과 '즈갓'에는 높임의 대상에 결합되는 관형격 조사 '스'이 쓰였다.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라) 왕이 부텃 소닐 자부샤 즈갓 가스매 다히시고 (왕이 부처의 손을 잡으시어 당신의 가슴에 대시고)</p> </div> <p>'부텃'과 재귀 대명사 '즈갓'은 높임의 대상으로, 높임의 대상인 유정 명사 뒤에 결합하는 관형격 조사 '스'이 쓰였다. 즉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관형격 조사 '스'이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높임의 유정 명사 뒤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p> |

[지문의 정보+기본 개념 고난도 기출] - 홀수 문법편 46p : 2017학년도 9월 15번(정답률 50%)

Q.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 <p>(가) <u>하ᄃᆞᆫ</u> 버리 눈 곧 디니이다 <용비어천가> (현대어 풀이 : 하늘의 별이 눈과 같이 떨어집니다.)</p> <p>(나) ㅉ이 <u>부터를</u> 講ᄃᆞᆫ스ᄃᆞᆫ쇼셔 <석보상절> (현대어 풀이 : 왕이 부처를 청하십시오.)</p> <p>(다) 어머니물 <u>아라보리로</u>소니잇가 <월인석보> (현대어 풀이 : 어머니를 알아보겠습니까?)</p> <p>(라) <u>내</u> 이를 위ᄃᆞᆫ야 <훈민정음언해> (현대어 풀이 : 내가 이를 위해서)</p> <p>(마) 그 물 <u>미ᄃᆞᆫ</u> 金물애 잇느니 <월인석보> (현대어 풀이 : 그 물 밑에 금모래가 있는데)</p> | |
|--|--|

- ① (가) : 무정 명사에 결합되는 관형격 조사 '스'이 쓰였다.
- ② (나) :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술-'이 쓰였다.
- ③ (다) : 판정 의문문의 '-아' 계열 의문형 어미가 쓰였다.
- ④ (라) :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주격 조사 '이'가 쓰였다.
- ⑤ (마) : 높이지 않는 유정 명사에 결합되는 관형격 조사 '의'가 쓰였다.

[정답] ⑤
현대어 풀이 '밑에'를 참고할 때 (마)의 '미ᄃᆞᆫ(밑 + '의')'에 쓰인 '의'는 높이지 않는 유정 명사에 결합되는 관형격 조사가 아니라, 무정 명사 '밑'에 결합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오답률 4위(약 61%) 예측] : 고전시가 34번 문항

| | |
|--|--|
| [적절하지 않은 선지 판단][Killer Point] | |
| ① | 구체적인 장소를 나열하여 화자가 거쳐야 할 변방까지의 여정을 드러낸다. |
| [Killer-Point] | → '문학 선택지를 판단할 때 애매하거나 해석이 잘 되지 않는다면 애매한 선지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확실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판단해야 한다. 우선 '출새곡'은 EBS 연계 지문이므로 문제 푼 김에 연계 학습을 해 두면 좋다. 실전에서 연계라는 것을 몰랐다 해도 35번의 <보기>를 잘 활용했다면 어느 정도의 해석이 가능했을 것이다. <보기>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학생이라도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에 집착하지 말고 선지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개념인 '나열'에 주목했다면 나열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틀린 선지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
| [적절한 선지(정답 선지) 판단] | |
| ④ | 자연의 풍광에 감탄하며 특정 지역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드러낸다. |
| | <p style="text-align: center;">< 보 기 ></p> <p style="text-align: center;">「출새곡」은 함경도 경성으로 부임하게 된 작가가 경성으로 가면서 본 풍광을 노래한 기행 가사이다. 다른 기행 가사와 달리 비애의 정서가 주조를 이루는 가운데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드러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중앙 정계에서 밀려나 변방으로 좌천되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비애의 정서는 험난한 여정 때문에 심화되기도 한다. 한편 이 작품에서는 임금을 향한 충정과 신하로서의 책무를 다하려는 태도도 엿볼 수 있다.</p> <p>→ 고전시가는 연계 작품이라면 쉽게 해석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연계 학습이 중요하다. 또한 <지문>의 보기는 이 작품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가 있는 문제뿐 아니라 지문의 다른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다. 35번 <보기>의 밑줄 친 내용에 주목하고 참고해서 지문을 독해했다면 지문에 자연 풍광에 대한 감탄이나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p> |
| [유사한 평가원 사례] - 2015학년도 수능 B형 34번 | |
| Q)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 | <p>도경(圖經) 열두 구비 내보매는 여러히라 이적선(李謫仙)이 이제 이서 고터 의논하게 되면 여산(廬山)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흐려니 산중을 미양 보라 동해로 가자스라</p> <p style="text-align: right;">- 정철, 「관동별곡」 -</p> |
| | <p style="text-align: center;">< 보 기 ></p> <p>선비들의 산수 유람에는 와유(臥遊)와 원유(遠遊)가 있다. 와유는 일상에서 산수화나 산수 유람의 글 등을 감상하며 국내외의 여러 경치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즐기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원유는 이름난 경치를 직접 찾아가 실제의 자연을 즐기는 흔치 않은 체험으로, 유교에서 강조하는 호연지기를 기르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p> |
| ② | (가)의 화자는 와유를 통해 상상하던 '여산'의 모습과 원유를 통해 실제로 바라본 '여산'의 모습을 비교하며 와유의 가치를 확인하고 있군. |

[Tip]

관동별곡을 모르는 학생이라면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 선지이다. 여산은 중국의 산으로, 이상적인 세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금강산이 여산만큼 아름답다는 의미가 된다.

[오답률 3위(68%) 예측] : 문법 11번 문항

[적절하지 않은 선지 판단][Killer Point]

| | |
|-----------------------|--|
| ㉘ | '들이마시고'는 ㉙에 해당하는 예로, 동사 어근인 '들-'과 '마시-'가 연결 어미를 매개로 하여 결합했다. |
| [Killer-Point]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㉙용언의 어근과 어근이 연결 어미를 매개로 하여 결합</p> </div> <p>어근, 접사, 어간, 어미를 구별하는 문제는 출제되면 오답률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학습해야한다. 특히 어근, 접사, 어간, 어미를 구분하는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단순히 개념을 외운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구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제 역시 어미와 접사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었다.</p> <p>'들이마시고'는 '들-+-이-+마시-+-고'로 분석되며 어근 '들-'과 '마시-'사이에 있는 '-이'가 연결 어미가 아니라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문제를 풀 수 있었다.</p> |

[참고] 2017학년도 6월 모평 15번

Q. <보기>의 ㉙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
|---|
| < 보 기 > |
| <p>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형성되는데, 어근들의 결합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둘로 나눌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사적 합성어: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같은 합성어 · ㉙비통사적 합성어 :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다른 합성어 |

- ①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밖에서 들렸다.
- ② 서로 몰라볼 정도로 세월이 많이 흘렀다.
- ③ 저마다의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④ 지난달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자신감이 생겼다.
- ⑤ 망치질을 자주 하다 보니 손바닥에 굳은살이 박였다.

[정답] ①

뛰노는'은 '뛰-(용언의 어간) + 놀-(용언의 어간) + -는(관형사형 어미)'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이는 용언과 용언이 연결 어미가 생략된 채로 결합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오답]

- ② '몰라볼'은 '모르-(용언의 어간) + -아(연결 어미) + 보-(용언의 어간) + -ㄹ(관형사형 어미)'로 구성된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③ '타고난'은 '타-(용언의 어간) + -고(연결 어미) + 나-(용언의 어간) + -ㄴ(관형사형 어미)'로 구성된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④ '지난달'은 '지나-(용언의 어간) + -ㄴ(관형사형 어미) + 달(체언)'로 구성된 통사적 합성어이다.
 - ⑤ 망치질을 자주 하다 보니 손바닥에 굳은살이 박였다.
- '굳은살'은 '굳-(용언의 어간) + -은(관형사형 어미) + 살(체언)'로 구성된 통사적 합성어이다.

[오답률 2위(약 70%) 예측] : 독서-경제 17번 문항

| | |
|---|--|
| [적절한 선지 판단][Killer Point] | |
| ④ | ④ 순 현재 가치 법에서 높게 책정할수록 사업의 타당성이 더 낮게 평가될 수 있다 |
| ⑤ | ⑤ 편익 비용 비 분석에서 낮게 책정할수록 편익 비용 비가 대체로 더 높게 산정된다. |
| [Killer-Point] | 2문단 '정부가 할인율을 고려하여 비용 편익 분석을 할 때에는 보통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한다. 먼저 순 현재 가치 법은'이라고 했다면, 이것은 병렬이다. 맨 처음은 잘 읽어야 한다.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된다면 가장 먼저 나온 방법의 문제, 단점, 한계를 다음 방법이 보완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 단점, 한계가 나왔다면 주목해야한다. 따라서 3문단 '그런데 순 현재 가치 법을 따르면 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문장에 주목했어야 했고 주목했다면 ④번 선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
| [적절하지 않은 선지(정답 선지) 판단] | |
| ① | 화폐의 현재 가치가 해마다 하락하는 비율이다 |
| '㉠ 화폐 가치의 할인율'처럼 특정 부분에 밑줄이 있는 문제라면 밑줄 근처에 답의 근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밑줄 근처를 정독해야함. 따라서 바로 밑줄인 2문단 첫 문장 '화폐 가치의 할인율이란 미래 시점의 일정 금액을 현재 시점의 화폐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라는 할인율의 개념과 이어지는 개념에 대한 예시에 주목했다면 할인율은 해마다 하락하는 비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
| [유사한 평가원 사례] - 2008학년도 수능 46번 | |
| Q. 밑글로 보아 <보기>의 ㉠에 대한 판단으로 타당한 것은? | |
| <p>정부나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현재에 투입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한다. 이 경우 물가 상승, 투자 기회,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할인의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환산을 가능케 해 주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올해의 10억 원은 내년에는 $(1+0.1)$을 곱한 11억 원이 되듯이,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의 11억 원의 현재 가치는 $(1+0.1)$로 나눈 10억 원이 된다.</p> | |
| < 보 기 > | |
| <p>한 개발 업체가 어느 지역의 자연 환경을 개발하여 놀이동산을 건설하려고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연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여 놀이동산의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중시하여 찬성하는 사람들로 갈리어 있다. 그래서 개발 업체와 지역 주민들은 ㉠ 놀이동산으로부터 장기간 파급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이익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을 계산해 보기로 하였다.</p> | |
| <p>① 사업의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는 주민들은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② 후손을 위한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주민들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③ 개발 업체는 놀이동산 개발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④ 놀이동산이 소득 증진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⑤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고 판단되면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p> | |
| [Tip] | |
| 정답은 ②번이었다. 이 문제 역시 할인율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다. 1문단의 마지막 문장에 제시된 내용을 통해 할인율은 그 수치가 높을수록 현재의 가치가 떨어지며 수치가 낮을수록 현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을 추론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 |

[오답률 1위(약 72%) 예측] : 과학 40번 문항

[적절한 선지(정답 선지) 판단]

| | |
|---|---|
| ③ | ㉠으로 임의의 사람을 검사했을 때 양성 판정이 나올 확률은 $P(S)P(T S)$ 와 $P(\infty S)P(T \infty S)$ 의 합이다. |
|---|---|

지문을 읽은 후, 이 문제를 처음 보고 복잡한 계산 문제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기 전에 겁부터 먹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수능이라는 시험에서는 복잡한 계산은 묻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 역시 내용 일치에 약간의 추론이 필요한 문제에 가깝다. 당황하지 말고 수업시간에 배운 대로 ㉠이 나온 4문단부터 5문단을 근거로 선지와 왔다 갔다 하면서 풀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P(T) : 임의의 사람을 검사했을 때 양성 판정을 내릴 확률 / P(T&S)와 P(T&~S)의 합
 -P(T&S) : $P(S) \times P(T|S)$
 -P(T&~S) : $P(\infty S) \times P(T|\infty S)$
 => 결국 이 선지는 P(T)를 구하는 식을 묻는 문제이고, 세 가지 정보를 종합하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유사한 평가원 사례] - 홀수 104p : 2017학년도 수능 39번[지문과 함께 확인할 것!]

Q. [가]를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이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 보험금)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 보 기 >

사고 발생 확률이 각각 0.1과 0.2로 고정되어 있는 위험 공동체 A와 B가 있다고 가정한다. A와 B에 모두 공정한 보험이 항상 적용된다고 할 때, 각 구성원이 납부할 보험료와 사고 발생 시 지급받을 보험금을 산정하려고 한다. 단, 동일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끼리는 납부하는 보험료가 같고, 지급받는 보험금이 같다. 보험료는 한꺼번에 모두 납부한다.

- ① A에서 보험료를 두 배로 높이면 보험금은 두 배가 되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변하지 않는다.
- ② B에서 보험금을 두 배로 높이면 보험료는 변하지 않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두 배가 된다.
- ③ A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B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서로 같다.
- ④ A와 B에서의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 A에서의 보험료는 B에서의 보험료의 두 배이다.
- ⑤ A와 B에서의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A와 B에서의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서로 같다

[Tip]

이 문항도 선지와 <보기>를 보면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용 일치에 가까운 문제이다. 지문에 제시된 밑줄 친 부분을 확인하기만 했다면 별다른 계산 없이도 답이 ⑤번이라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① 문법

[참고] 문법의 경우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고 나서 자신이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문항을 풀기 위해 알아야 하는 개념들을 스스로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합성어](11번 관련)

| | |
|----------|------------------------------|
| 통사적 합성어 |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에 따른 합성어 |
| 비통사적 합성어 | 우리말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서 벗어난 합성어 |

(1) 통사적 합성어

| 종류 | 예시 |
|---|-------------------------|
| ① 체언 + 체언 | 눈발, 밤낮, 눈물 |
| ② 관형사 + 체언 | 새해, 옛날, 첫사랑 |
| ③ 용언의 관형사형 + 체언 | 어린이, 작은집, 뜰소문 |
| ④ 용언의 연결형 + 용언 | 갈아입다, 알아듣다, 들어가다, 파고들다 |
| ⑤ 체언 + 용언 : 우리말에서 조사 생략은 일반적이므로, 일반적인 단어 배열에 해당한다. | 철들다, 빛나다, 본받다, 힘쓰다, 앞서다 |

(2) 비통사적 합성어

| 종류 | 예시 |
|---------------|----------------|
| ① 용언의 어간 + 체언 | 뒹뒹, 접칼 |
| ② 용언의 어간 + 용언 | 검붉다, 높푸르다, 굳세다 |
| ③ 부사 + 체언 | 산들바람, 오목거울 |
| ④ 한자어 결합 방식 | 등산, 독서 |

[의미 결합 방식에 따른 합성어 구분](12번 관련)

| 합성어 | 의미 | 예시 |
|--------|-------------------------------|-------------------|
| 대등 합성어 | 두 어근이 대등한 자격으로 결합한 합성어 | 눈발, 마소, 오가다, 높푸르다 |
| 종속 합성어 | 한 어근이 다른 어근에 종속된 합성어 | 돌다리, 책가방, 콩나물밥 |
| 융합 합성어 | 결합한 단어가 전혀 다른 제3의 의미로 탄생한 합성어 | 춘추(연세), 산수(경치) |

[선택지 해설]

11. ①

정답해설 : 답은 ①이야.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어근’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해. ‘어근’은 단어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야. ‘떡다’에서는 ‘떡’이 어근이 되겠지. 문제로 돌아가자. 먼저, ㉠은 용언의 어근과 어근이 연결 어미를 매개로 하여 결합한 합성어지. 그럼, ‘들이마시고’를 살펴보자. ‘들이마시고’는 ‘들-+-이-+마시-+-고’로 형태소 분석 할 수 있어. 이때, 어근을 찾아보면 ‘들-’과 ‘마시-’인 것을 알 수 있어. ‘들다’와 ‘마시다’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부분이 ‘들-’과 ‘마시-’니까. 그럼 ‘-이-’의 정체는 뭘까? ㉠에 해당하는 예가 되기 위해서는 ‘-이-’가 연결 어미여야 해. 하지만, ‘-이-’는 사동 접미사야. 즉, ‘들이마시다’에는 연결 어미가 존재하지 않으며, ‘들이마시다’는 연결 어미 없이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로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해.

[오답풀이]

㉡를 살펴보자. 먼저, ㉡은 용언의 어근과 체언이 관형사형 어미를 매개로 하여 결합된 합성어야. 그럼, ‘큰아버지’를 살펴보자. ‘큰아버지’는 ‘크-+-ㄴ-+아버지’야. 즉, ‘크다’의 어근인 ‘크-’ 뒤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ㄴ-’이 붙어 뒤에 오는 명사인 ‘아버지’를 꾸며주고 있어. 이때, 관형사형 전성 어미란 본래 주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용언의 어근 뒤에 붙어서 잠깐 관형어의 역할을 해주게 하는 어미인 것 알고 있지? 그래서, ‘큰’이 뒤에 오는 명사 ‘아버지’를 꾸미게 되는 거야. 이렇게 관형어가 체언을 꾸며주는 것은 우리나라 단어 배열법에 부합해서 ‘큰아버지’는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해.

㉢을 살펴보자. 먼저, ㉢은 체언과 용언이 결합한 합성어야. 그럼, ‘힘들어’를 살펴보자. ‘힘들어’는 ‘힘이 들어’에서 조사 ‘이’가 생략되고, 체언 ‘힘’과 용언 ‘들어’가 결합한 합성어야. 우리 문법에서는 조사가 빠지는 것은 큰 일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생략된 체언과 용언이 결합한 ‘힘들어’는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해.

㉣를 살펴보자. 먼저, ㉣은 용언의 어근과 어근이 연결 어미 없이 결합한 합성어야. 그럼, ‘내살’을 살펴보자. ‘내살’은 ‘내-+쉬-+-ㄹ’로 형태소 분석 할 수 있어. 이때, ‘내-’는 ‘내다’의 어근, ‘쉬-’는 ‘쉬다’의 어근이지. 그런데, 이 두 어근이 중간에 연결 어미 없이 연결되었어. 원래, 두 개의 어근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내고 쉬다’의 ‘-고’ 같은 연결 어미가 있어야 우리 문법의 단어 배열법에 맞아. 하지만, 이러한 연결 어미 없이 두 어근이 바로 연결된 ‘내살’은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해.

㉤를 살펴보자. 먼저, ㉤은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방식으로 부사와 체언이 결합한 합성어야. 그럼, ‘오랫동안’을 살펴보자. ‘오랫동안’은 ‘오래+동안’으로 형태소 분석 할 수 있어. ‘오래’는 부사, ‘동안’은 체언이야. 이때, ‘-ㅅ’이 들어가는 것은 사잇소리 현상이지. 하지만, 우리 문법에서 부사가 체언을 꾸며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해.

12. ④

정답해설 : 답은 ④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첫째, 단어가 통사적 합성어인지 비통사적 합성어인지 판단해야 하고, 둘째, 단어가 대등합성어인지 종속 합성어인지 융합 합성어인지 판단해야 해. ‘피땀’을 먼저 통사적 합성어인지 비통사적 합성어인지 판단하면 체언과 체언의 결합으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해. 하지만, ‘피땀’의 의미가 정말로 우리가 아는 ‘피’와 ‘땀’이야? 아니지!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노력과 정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가져. 그럼 대등 합성어가 아니라 ‘융합 합성어’에 해당하지.

[오답풀이]

①의 ‘높푸르다’는 용언 ‘높다’의 어근 ‘높’과 용언 ‘푸르다’의 어근 ‘푸르’가 연결 어미 없이 곧바로 이어져 만들어진 ‘비통사적 합성어’야. 다음으로 의미를 살펴보자. ‘높푸르다’는 ‘높다’와 ‘푸르다’가 결합되어 ‘높고 동시에 푸르다’라는 의미지? 그렇지, ‘높다’와 ‘푸르다’가 의미적으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각자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는 ‘대등 합성어’야.

②의 ‘밤낮’은 체언 ‘밤’과 체언 ‘낮’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통사적 합성어’야. 우리 문법에서 체언과 체언의 결합은 우리말 배열 순서에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이야. 다음으로 의미를 살펴보자. ‘밤낮’은 정말 시간으로서 ‘밤’과 ‘낮’ 두 시간대를 의미해? 그렇지, 아니야. 대신 ‘늘, 항상’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융합 합성어’에 해당해.

③의 ‘뉘뉘’는 용언 ‘뉘다’와 명사 ‘뉘’가 결합된 거야. 그런데, 본래 주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용언이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려면 어미를 바꾸어 주어야 해. 용언에서 어미 부분은 ‘-다’ 부분인거 알고 있지? 그럼 그 부분을 관형어의 역할을 하게 해주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으로 바꾸어 보면 ‘뉘은’이 되고, ‘뉘은 뉘’이 되는 걸 알 수 있어. 하지만, ‘뉘뉘’에는 이러한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되어 있지. 우리 문법에서 어미가 생략되는 건 우리 단어 배열법에 위배되는 일로 여겨. 즉, ‘뉘뉘’는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거야. 다음으로, 의미를 살펴보자. ‘뉘뉘’는 본래 ‘뉘은 뉘’으로 ‘뉘-’이 ‘뉘’을 수식하고 있지! 그러니까 ‘종속 합성어’가 되는 거야.

⑤의 ‘감나무’는 체언 ‘감’과 체언 ‘나무’가 결합해 ‘통사적 합성어’야. 다음으로, 의미를 살펴보자. ‘감나무’는 ‘감이 열리는 나무’로, ‘감’이 ‘나무’를 수식하고 있어서 ‘종속 합성어’에 해당해.

[15번][문제를 풀기 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1. 중세의 높임 표현

(1) 주체 높임 :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사용

| 현대 국어 | 중세 국어 | 예시 |
|------------|--------------|---|
| -시- / -으시- | -시-(자음 어미 앞) | 가시고, 가시니 |
| | -샤-(모음 어미 앞) | 낙샤 (늘- + -으샤- + -아) |

(2) 객체 높임 :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사용

| 현대 국어 | 중세 국어 | 예시 |
|---|---------------------------------|--------------|
| 선어말 어미 없이 특수 어휘로 실현 (여주다, 모시다, 뵈다, 드리다) | -습/술- (어간의 끝소리 ㄱ, ㅂ, ㅅ, ㅎ 뒤) | 막습거늘 뵈스븐니 |
| | -줍/줄- (어간의 끝소리 ㄷ, ㅌ, ㅈ, ㅊ 뒤) | 듣줍게 얻줍바 |
| | -습/술- (어간의 끝소리 유성음 뒤) | 보습게 그초스바 |

- 후행 어미가 자음이면 ‘-습/줍/습-’, 후행 어미가 모음이면 ‘-술/줄/술-’

(3) 상대 높임 : 상대 높임 선어말어미나 어말 어미 사용

| 현대 국어 | | 중세 국어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r> <td>아주 높임</td> <td>하십시오체</td> </tr> <tr> <td>예사 높임</td> <td>하오체</td> </tr> <tr> <td>예사 낮춤</td> <td>하게체</td> </tr> <tr> <td>아주 낮춤</td> <td>해라체</td> </tr> <tr> <td>두루 높임</td> <td>해요체</td> </tr> <tr> <td>두루 낮춤</td> <td>해체(반말)</td> </tr> </table> | 아주 높임 | 하십시오체 | 예사 높임 | 하오체 | 예사 낮춤 | 하게체 | 아주 낮춤 | 해라체 | 두루 높임 | 해요체 | 두루 낮춤 | 해체(반말) | <p>- 현대 국어는 ‘종결 어미’로 상대 높임 표현 - ‘해요’체의 ‘요’는 통용 보조사</p> | <p>하쇼셔체</p> | 평서형 : -이- | 하느이다 |
| | 아주 높임 | 하십시오체 | | | | | | | | | | | | | | |
| | 예사 높임 | 하오체 | | | | | | | | | | | | | | |
| | 예사 낮춤 | 하게체 | | | | | | | | | | | | | | |
| | 아주 낮춤 | 해라체 | | | | | | | | | | | | | | |
| | 두루 높임 | 해요체 | | | | | | | | | | | | | | |
| 두루 낮춤 | 해체(반말) | | | | | | | | | | | | | | | |
| 의문형 : -잇- | 하느니잇가 | | | | | | | | | | | | | | | |
| 명령형 : -쇼셔 | 아라쇼셔 | | | | | | | | | | | | | | | |
| <p>하야셔체</p> | 평서형 : -강- | 하넝다 | | | | | | | | | | | | | | |
| | 의문형 : -스- | 하느닛가 | | | | | | | | | | | | | | |
| | 명령형 : -어써 | 술바써 | | | | | | | | | | | | | | |
| <p>하라체</p> | 평서형 | 하느다 | | | | | | | | | | | | | | |
| | 의문형 | 하년년/하년노 | | | | | | | | | | | | | | |
| | 명령형 | 굴바쓰라 | | | | | | | | | | | | | | |

2. 중세의 격 조사 중 높임을 표현하는 격조사

(1) 관형격 조사

| 형태 | 환경 | 예시 |
|----|-----------------------------|------------------|
| 스 | 높임 유정 명사, 무정 명사 뒤 | 부터 + 스 나라 + 스 |
| 익 | 평칭의 유정 명사 뒤 | 물 + 익 |
| 의 | - '익/의'의 교체는 모음조화에 따라 결정된다. | 崔九(최구) + 의 |

(2) 호격 조사

| 형태 | 환경 | 예시 |
|------|--------------------|------------------|
| 하 | 상위자인 높임 명사 뒤 | 님금 + 하 |
| (이)여 | 상위자는 아니나 대우하여 부를 때 | 觀世音 + 이여 |
| 아/야 | 하위자나 동등한 명사 뒤 | 阿難 + 아 長者 + 야 |

[선택지 해설]

15. ④

정답해설 : 답은 ④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문장에서 누구를 높이는지 파악해 높임의 종류를 파악하고, 그 다음 높임을 표현하기 위한 요소들을 찾아야해. (라)를 살펴보자. ‘왕이 부텃 소놀 자브샤 즈갓 가스매 다히시고’라는 문장을 보면 밑줄 친 ‘부텃’와 ‘즈갓’이 각각 ‘부텃 + 시’, ‘즈갓 + 시’로 분석되는 걸 알 수 있어. 이때, ‘부텃’과 ‘즈갓’은 둘 다 높임의 대상이야. ‘부텃’은 부처님을 이야기하고, ‘즈갓’은 앞에 나온 ‘왕’을 다시 받은 대명사니까! 또한, 둘은 살아있는 대상이니 유경 명사에 해당하지. 즉, ‘부텃’과 ‘즈갓’은 높임의 유경명사에 해당해. 그럼, 관형격 조사를 쓸 때, ‘높임의 유경 명사’에 사용되는 관형격 조사 ‘시’를 써야지.

[오답풀이]

①을 살펴보자. ‘님금하 아랴쇼셔’에서 높임의 대상은 ‘님금’이지. 자, 그럼 ‘님금’은 문장에서 ‘청자, 주체, 객체’ 중에 무엇이야? 그렇지, 지금 서술자의 말을 들어주는 ‘청자’지. 그럼 청자를 높이는 높임법은 ‘상대높임법’이며, ‘상대높임법’을 실현하는 방법은 ‘높임의 종결 어미’ 사용인 걸 기억해야 해. 해당 문장에서 사용된 종결 어미는 뭐야? 그렇지, ‘쇼셔’야. ‘쇼셔’는 호쇼셔체의 명령형 어미로, 청자인 ‘님금’을 높이고 있어. 더불어, 청자인 ‘님금’을 부를 때, 호격 조사 ‘하’를 쓰고 있어. 호격 조사 ‘하’ 또한, 화자보다 상위자인 대상, 즉 높임의 대상에 쓰이는 조사야. 그러니까, 선지에서 ‘아랴쇼셔’에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사용되었다는 부분이 틀린 거야.

②를 살펴보자. 이 문장에서는 누구를 높이고 있는지 한 눈에 들어오지 않아. 그럼, 높임 요소를 먼저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하늘히 聖子를 내시니이다’에서 서술어를 분석하면, ‘내- + -시- + -니- + -이- + -다’로 할 수 있어. 그럼 어떤 높임의 요소들을 썼는지 찾아보자. 먼저,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보여. 그리고 호쇼셔체의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가 보여. 즉, 이 문장에는 주체 높임과 상대 높임이 사용된 거야. 즉, 문장의 주체인 ‘하늘’을 높이며, 동시에 문장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해당 문장을 듣는 누군가, 즉 상대를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선지에서 주체를 높이기 위해 ‘시-’를 쓴 것은 맞지만, 객체를 높이기 위해 ‘이-’가 사용되었다는 것이 틀린 거야.

③을 살펴보자. ‘聖宗을 뵈셔 九泉에 가려 하시니’에서 일단 높임의 대상은 ‘聖子’임을 알 수 있어. ‘聖宗’은 문장에서 목적격 조사 ‘을’을 가지고 있는 걸 보니 ‘목적어’인 걸 알겠지? 자, 그럼 목적어는 무장에서 ‘청자, 주체, 객체’ 중에 무엇이지? 그렇지, 객체야. 그럼 객체를 높이는 높임법은 ‘객체높임법’이며, 이를 실현하는 방법은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 ‘습/술-’, ‘줍/줄-’, ‘습/술-’과 특수 어휘인 것을 기억해야 해. 이 문장에서는 ‘聖宗’을 높이기 위해 ‘뵈셔’를 사용했어. ‘뵈셔’를 분석하면 ‘뵈시- + -어’가 돼. 기본형이 ‘뵈시다’거든. 즉, 이 문장에서는 객체인 ‘聖宗’을 높이기 위해 특수 어휘인 ‘뵈셔’를 사용한 거야. 그러니까, 선지에서 이 문장에서 주체를 높이기 위해 ‘뵈셔’에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를 썼다는 것이 틀린 거야. 그럼, 주체 높임은 어디에 사용되었을까? 맞아. ‘가려 하시니’에 사용되었어. ‘가려 하시니’의 주체는 문장에 나와 있지 않아. 하지만, ‘하시니’를 분석해 보면 ‘하- + -시- + -니-’인 게 보이지? 즉,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사용되었어. 주체가 정확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聖宗’을 모시고 가는 주체 또한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주체 높임을 사용한 거야.

⑤를 살펴보자. ‘왕이 부텃을 講^{ᄒᆞ}스^{ᄒᆞ}쇼셔’에서 높이는 대상은 ‘王’과 ‘부텃’야. 그럼 우선 ‘王’은 문장에서 ‘청자, 주체, 객체’ 중에 무엇이지? 그렇지, 지금 화자의 말을 듣고 있는 ‘청자’야. 그럼 상대 높임법을 사용해야 하며, 종결 어미로 상대 높임을 표현해야 겠지. 그래서, ‘講^{ᄒᆞ}스^{ᄒᆞ}쇼셔’에서 ‘호쇼셔’체의 명령형 종결 어미 ‘쇼셔’를 사용했어. 다음으로, ‘부텃’은 문장에서 ‘청자, 주체, 객체’ 중에 무엇이지? 맞아, 뒤에 목적격조사 ‘를’이 붙어있으니 ‘객체’지. 그럼 객체 높임법을 사용해야 하며,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 ‘습/술-’, ‘줍/줄-’, ‘습/술-’과 특수 어휘 중에 하나를 사용하겠네. ‘講^{ᄒᆞ}스^{ᄒᆞ}쇼셔’를 분석하면 ‘講 + ᄒᆞ- + -술- + -(으)쇼셔’가 돼. 이 분석을 바탕으로 객체 높임의 표현 요소를 찾으면 객체 높임 선어말어미 ‘술-’을 도출할 수 있어. 즉, 선지에서 문장에서 주체를 높이기 위해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사용되었다는 것이 틀린 거야.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② 문학

[참고] 모의고사로 문제를 풀어 본 김에 EBS 연계 작품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리지 말고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EBS 연계를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출제 될 때마다 공부해두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현대소설 [21~26번 지문] [이청준, '눈길'] '내 재작아, 부디 뭉이나 성히 지내라. 부디부디 너라도 좋은 운 타서 복 받고 살거라...'

#EBS 수능특강 연계 #수능특강(p265) #수능특강 문학 사용설명서(p243) 참고하기

| [전체 줄거리] | |
|--|--|
| <p>'나'는 어린 시절 가난한 가정 형편으로 인해 어머니께 사랑을 받은 일이 없어 갇을 은덕도 없다고 생각하며 어머니를 노인으로 부른다. '나'가 고향에 내려 온 때에 노인이 '나'에게 마을의 지붕 개량 사업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며 집을 고치려는 계획을 던지시 말하자 '나'는 노인에게 받은 것이 없고 그래서 갇아야 할 빛도 없다고 외면한다. 그런데 지문 출제 부분 아내가 노인에게 과거 이야기를 자주 물어보고 노인은 과거에 집을 팔게 된 사연과 남의 집이 된 자신의 집에서 아들을 하루 재우고 보냈던 일을 이야기한다. 노인은 아들이 떠나는 새벽 아들과 함께 눈길을 걸어 아들을 떠나보냈던 일을 회상하며 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고 아들의 앞날을 빌며 돌아왔음을 말한다. 자신이 떠난 뒤의 일을 알게 된 '나'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뒤늦게 깨닫고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p> | |

[읽기 전] <보기>를 가이드라인으로 작품 내의 '의미'를 파악한다.

| <보기> | |
|--|--|
| <p>문학 작품에서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장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행동에 개연성을 부여하고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또한 공간은 인물 간의 갈등의 형성과 해소에 관련되기도 하고, 서로 대비되면서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띠기도 한다.</p> | |
| <p>작품 속 '공간'</p> | <p>① 단순한 물리적 공간 X ② 인물의 행동에 개연성 부여 ③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드러내는 역할 ④ 인물 간의 갈등의 형성 혹은 해소와 연관 ⑤ 서로 대비 → 상징적 의미</p> |

| [앞부분 줄거리] <small>'습격하게 갑속'</small> | |
|--|--|
| <p>어머니의 집에 아내와 함께 내려간 '나'는 잠결에 어머니와 아내의 대화를 엿듣게 된다. 그리고 20여 년 전, 집안이 파산하여 남에게 넘어간 집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마지막으로 하룻밤 재우고 새벽에 배웅해 주던 일을 떠올린다.</p> | |
| <p>1. 사건 배경 파악</p> | <p>어머니는 20년 전에 '나'를 떠나보낸 적이 있음 어머니가 '나'를 배웅해주던 때의 일을 떠올림 → 과거 회상</p> |
| <p>2. 등장인물 파악</p> | <p>'나' [→ 서술을 통해 과거 사건 제시] 어머니 [→ 대화를 통해 과거 사건 제시] ←------(대화)-----> 아내</p> |

[읽는 중] '장면 끊어 읽기'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의 머릿속에도 마침내 그날의 정경이 손에 닿을 듯 역력히 떠올랐다. 어린 자식 놈의 처지가 너무도 딱해서였을까. 아니 어쩌면 노인 자신의 처지까지도 그 밖엔 달리 도리가 없었을 노릇이었는지도 모른다. 동구 밖까지만 바라다주겠다던 노인은 다시 마을 뒷산 잣길까지 나를 좀 더 아래 주마 우겼고, 그 잣길을 올라선 다음엔 새 신작로가 나설 때까지 산길을 함께 넘어가자 우겼다. 그럴 때마다 한차례씩 애 시린 실랑이를 치르고 나면 노인과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있을 수 없었다. 아닌 게 아니라 날이라도 좀 밝은 다음이었으면 좋았겠는데, 날이 밝기를 기다려 동네를 나서는 건 노인이나 나나 생각을 안 했다. 그나마 그 어둠을 타고 마을을 나서는 것이 노인이나 나나 마음이 편했다. 노인의 말마따나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 내가 미끄러지면 노인이 나를 부축해 일으키고, 노인이 넘어지면 내가 당신을 부축해 가면서, 그렇게 말없이 신작로까지 나섰다. 그러고도 아직 면소 차부까지는 길이 한참이나 남아 있었다. 나는 결국 그 면소 차부까지도 노인과 함께 신작로를 걸었다.

아직도 날이 밝기 전이었다.

하지만 그러고 우리는 어찌 되었던가.

나는 차를 타고 떠나갔고, 노인은 다시 어둠 속의 눈길을 되돌아서야 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거기까지뿐이었다.

노인이 그 후 어떻게 길을 되돌아갔는지는 나로서도 아직 들은 바가 없었다. 노인을 길가에 혼자 남겨 두고 차로 올라선 그 순간부터 나는 차마 그 노인을 생각하기가 싫었고, 노인도 오늘까지 그날의 뒷얘기는 들려준 일이 없었다. 그런데 노인은 웬일로 오늘사 그날의 기억을 끝까지 돌이키고 있었다.

(중략)

“어떻게 하기는야. 녀이 나간 사람마냥 어둠 속에 한참이나 찾길만 바라보고 서 있을 수밖에야..... 그 허망한 마음을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있을거냐.....”

노인은 여전히 옛 얘기를 하듯 하는 그 차분하고 아득한 음성으로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나갔다.

“한참 그러고 서 있다 보니 찬바람에 정신이 좀 되돌아오더구나. 정신이 들어 보니 갈 길이 새삼 허망스럽지 않았잖냐. 지금까지진 그래도 저하고 나하고 둘이서 함께 헤쳐 온 길인데 이참에는 그 길을 늙은 것 혼자서 되돌아서러니..... 거기다 아직도 날은 어둡지야..... 그대로는 암만해도 길을 되돌아설 수가 없어 차부를 찾아 들어갔더니라. 한 식경이나 차부 안 나무 걸상에 웅크리고 앉아 있으려니 그제사 동녘 하늘이 흰해져 오더구나..... 그래서 또 혼자 서두를 것도 없는 길을 서둘러 나섰는데, 그때 일만은 언제까지도 잊힐 수가 없을 것 같구나.”

“길을 혼자 돌아가시던 그때 일을 말씀이세요?”

“눈길을 혼자 돌아가다 보니 그 길엔 아직도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지 않았잖냐. 눈발이 그친 그 신작로 눈 위에 저하고 나하고 둘이 걸어온 발자국만 나란히 이어져 있구나.”

“그래서 어머니는 그 발자국 때문에 아들 생각이 더 간절하셨겠네요.”

“간절하다뿐이었잖냐. 신작로를 지나고 산길을 들어서도 굽이굽이 돌아온 그 몸쓸 발자국들에 아직도 도란도란 저 아그 목소리나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듯만 싶었제. 산비둘기만 푸르르 날아올라도 저 아그 녀이 새가 되어 다시 되돌아오는 듯 놀라지고, 나무들이 눈을 쓰고 서 있는 것만 보아도 뒤에서 금세 저 아그 모습이 뛰어 나올 것만 싶었지야. 하다 보니 나는 굽이굽이 외지기만 한 그 산길을 저 아그 발자국만 따라 밟고 왔더니라. 내 자석아, 내 자석아, 너하고 둘이 온 길을 이제는 이 몸쓸 늙은 것 혼자서 너를 보내고 돌아가고 있구나!”

“어머님 그때 우시지 않았어요?”

“울기만 했잖냐. 오목오목 디터 눈 그 아그 발자국마다 한도 없는 눈물을 뿌리며 돌아왔제. **내 자석아, 내 자석아, 부디 몸이나 성히 지내거라. 부디부디 너라도 좋은 운 타서 복 받고 살거라..... 눈앞이 가리도록 눈물을 떨구면서 눈물로 저 아그 앞길만 빌고 왔제.....”**

- 이청준, 「눈길」 -

[읽은 후] 'EBS 연계 지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 EBS 독해 포인트(in 사용설명서) | | |
|--|---|------------|
| <p>이 작품은 작가 자신의 실제 과거 모습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 소설이다. 이 작품은 어머니에게서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했기에 은혜를 갚을 도리도 없다고 생각한 주인공이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과거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상기하게 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즉 고향에 내려간 '나'가 과거 자신을 맞이하고 배웅하던 어머니의 마음을 뒤늦게 알게 됨으로써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의 제목인 '눈길'은 어머니가 묵묵히 자신의 불행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것을 나타내는 길이며,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p> | | |
| 어머니에 대한 인식 | 인식 변화의 계기 | 어머니에 대한 인식 |
| 부정적 |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음]-----> | 긍정적 |
| EBS 연계 POINT | | |
| - 문제를 풀고 공부할 때, 이 정도는 알아두자. | | |
|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 |
| 구성 | 과거 회상 → 역순행적 구성 | |
| 표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상징적 소재, 특정한 공간과 얽힌 과거 이야기 등을 서술함으로써 주제가 드러남 • 공간의 이동 [동구 밖] → [마을 뒷산 잣길] → [새 신작로] → ... ⇒ '나'와 헤어지기 싫은 어머니의 심리가 드러남 | |
| '눈길'의 의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안이 파산한 후 집을 떠나는 '나'가 차부로 가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걷는 공간 •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가 어머니의 사랑과 배려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공간 | |
| '노인'의 의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에게서 사랑을 받은 일이 없다는 '나'의 인식 반영 • 어머니와 거리를 두려는 심리 | |
| '아내'의 역할 | '아내'는 어머니의 사랑을 애써 외면하는 남편의 태도와는 달리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 인물 로서, 어머니의 사랑을 일깨우기 위해 어머니에게 과거 이야기를 이끌어 내는 역할 을 수행하고 있음. | |

고전시가 [33~35번 지문][조우인, '출새곡'] '모래바람 자욱한데 갈 길이 멀었구나...'

#EBS 수능특강 연계 #수능특강(p274) #수능특강 문학 사용설명서(p252) 참고하기

[읽기 전] '고전시가 역시 <보기>를 보면 시에서 중점적으로 봐야할 지점이 보인다.'

| <보기> | |
|---|---|
| <p>「출새곡」은 함경도 경성으로 부임하게 된 작가가 경성으로 가면서 본 풍광을 노래한 기행 가사이다. 다른 기행 가사와 달리 비애의 정서가 주조를 이루는 가운데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드러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중앙 정계에서 밀려나 변방으로 좌천되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비애의 정서는 험난한 여정 때문에 심화되기도 한다. 한편 이 작품에서는 임금을 향한 충정과 신하로서의 책무를 다하려는 태도도 엿볼 수 있다.</p> | |
| 화자의 상황 | 경성으로 부임 (=좌천) → 경성으로 가는 과정 ⇨ 기행 가사 |
| 화자의 정서 | <p>1. 비애(悲哀=슬픔과 설움)의 정서 →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 ↓ 험난한 여정 때문에 심화</p> <p>2. 임금을 향한 충정 + 신하로서의 책무</p> |

| 직독 : 지문 훑기 [눈에 띄는 시어(구) 파악 → 시적 상황, 화자(대상)의 정서, 태도] | |
|---|---|
| 목민(牧民)을 나를 맡겨 | <p>화자의 상황 → 목민(=임금이나 관리가 백성을 다스려 기쁨)을 맡음 = 지방 관리직을 맡게 됨</p> |
| 눈물을 거두고 | <p>화자의 정서 → 비애, 슬픔</p> |
| 임금과 멀어진 신하는 원망도 많구나 | <p>화자의 정서 → 원망 → 원망의 대상 ⇨ 현실</p> |

[읽는 중] '화자가 원망하는 대상은 변방으로 좌천된 자신의 상황, 즉 '현실'이지, '임금'이 아니다.'

| 원문 | 현대어 풀이 |
|---|---|
| <p>북방 이십여 주에 경성(鏡城)이 문호(門戶)인데 치병(治兵) 목민(牧民)을 나를 맡겨 보내시니 망극한 성은(聖恩)을 갚을 길이 어렵구나 서생(書生)의 일은 한묵(翰墨)인가 여겼더니 백수(白首)의 변방 부임 진실로 의외로다 임금께 절하고 칼을 잡고 돌아서니 만 리 밖 국경에 일신(一身)을 다 잊겠구나 흥인문(興仁門) 내달아 녹양(綠陽)에 말 갈아타고 은한(銀漢) 옛길을 다시 지나간단 말이나 회양(淮陽) 옛 사실 소문만 들었더니 대궐을 홀로 떠나는 적객(謫客)은 무슨 죄인가 높고 험한 철령(鐵嶺)을 험하단 말 전혀 마오 세상살이를 보거든 평지인가 여기노라 눈물을 거두고 두어 걸음 돌아서니</p> | <p>북방 이십여 주에 경성(함경북도의 고을)이 문호(통로)인데 군사와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나에게 맡겨 보내시니 망극한 임금의 은혜를 갚기가 어렵구나 선비의 일은 글을 읽거나 쓰는 일이라고 여겼는데 나이가 들어 변방의 임무를 맡게 되는 참으로 의외이다 임금께 절하고 칼을 잡고 돌아서니 만리 밖 국경에서 내 자신을 다 잊어버리겠구나 흥인문(동대문)을 지나 녹양(의정부)에서 말을 갈아타고 은한의 옛길을 다시 지나간단 말이나 회양(강원도의 고을)의 옛날 일을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대궐을 홀로 떠나는 적객은 무슨 죄인가 높고 험한 바위 고개를 험하다고 하지 마라 (고개에서) 세상살이를 보니 평지처럼 보이는구나 눈물을 거두고 두어 걸음 돌아서니</p> |

장안(長安)이 어디요 옥경(玉京)이 가렸도다
안변(安邊) 북쪽은 저쯤에 오랑캐 땅인데
오랑캐를 정벌하여 천 리 밖 몰아내니
윤관 김중서의 풍공(豐功) 위열(偉烈)을 초목이 다 알도다
용흥강(龍興江) 건너와 정평부(定平府) 잠깐 지나
만세교(萬歲橋) 앞에 두고 낙민루(樂民樓)에 올라앉아
옥저(沃沮)의 산하를 하나하나 돌아보니
천년 풍패(豐沛)에 울창(鬱蒼) 가기(佳氣)는 어제인 듯하구나
함관령(咸關嶺) 저문 날에 말은 어찌 병들었는가
모래바람 자욱한데 갈 길이 멀었구나

(중략)

태평 시절 적관(謫官)이 도처에 군은(君恩)이로되
대궐에서 멀어짐을 뉘 아니 슬퍼하며
대궐로 돌아감을 어떻게 기약할까
평생 품은 뜻이 전혀 없다 할까마는
시운(時運)의 탓이런가 운명에 매였는가
진대(秦臺) 백수(白首)의 세월이 쉬이 가니
임금과 멀어진 신하는 원망도 많구나
이 잔 가득 부어 이 시름 잊자 하니
동해를 다 퍼낸들 이 내 시름 어이할꼬

- 조우인, 「출새곡(出塞曲)」 -

장안이 어디인가 옥경(임금이 있는 곳)이 가렸도다
안변(함경도의 고을)의 북쪽은 오랑캐들의 땅인데
오랑캐를 정벌하여 천리 밖으로 몰아내니
윤관 김중서의 큰 공훈과 위대한 업적을 모두가 다 아는구나
용흥강 건너와 정평부(평안도의 고을) 잠깐 지나
만세교 앞에 두고 낙민루에 올라 앉아
옥저(과거 함흥 일대에 있던 나라)의 산하를 하나하나 돌아보니
함흥의 울창한 자연의 기운은 과거인 듯하구나
함관령에 저녁이 되니 말은 어째서 병이 들었는가
모래바람이 자욱한데 갈 길이 멀었구나

(중략)

평화로운 세상에 좌천된 관리에게 모든 것이 임금의 은혜인데
대궐에서 멀어짐을 누가 슬퍼하지 않으며
대궐로 언제 돌아갈지를 어떻게 기약할까
평생 품은 뜻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데
시운의 탓인가 운명에 매였는가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늙는 줄을 몰랐던 세월은 금방 가고
임금과 멀어진 신하는 (세상에) 원망도 많구나
이 잔에 (술을) 가득 부어 이 근심을 잊고자 하니
동해를 다 퍼서 술잔에 부은들 이 내 근심을 어찌할꼬

- 조우인, 「출새곡(出塞曲)」 -

[읽은 후] 'EBS 연계를 지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 EBS 독해 포인트(in 사용설명서) |
|---|
| 이 작품은 광해군 때의 문인 조우인이 지은 기행가사로, 작가가 함경도의 경성 판관으로 부임하는 과정과 부임지에서의 생활과 소회 등을 기록한 것이다. 정철의 「관동별곡」을 본보기로 삼아 창작된 것으로 보이며, 변방 생활에서의 애환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 더 알아두기(in 사용설명서) |
| 「출새곡」은 작가가 56세 되던 해 함경도 경성 판관으로 임명되어 떠날 때, 친척으로부터 정철의 「관동별곡」과 같은 가사를 지어 오라는 권고를 받고 창작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이 작품은 「관동별곡」과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
| 「출새곡」과 「관동별곡」의 유사한 부분(in 사용설명서) |
| 시작부터 7행까지의 내용이 「관동별곡」의 앞부분과 유사하다. ① 두 작품 모두 앞부분에 벼슬을 하지 않고 있었던 화자의 처지가 드러나 있으며, 지방 관리로 임명받은 화자가 ②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③ '칼'과 '옥절'이라는 소재를 통해 화자가 맡은 임무가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 EBS 연계 POINT | |
|-----------------------------|---|
| - 문제를 풀고 공부할 때, 이 정도는 알아두자. | |
| 여정 | [인정전(임금) → 흥인문 → 녹양 → 은한 → 회양 → 안변 → 정평부 → 낙민루] → 흥원 → 고현 → 청해진 ↳ 한수 모의고사 출제 부분 |
| 감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 경로가 매우 험난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됨 • 서울에 있는 임금을 떠올리며 연군의 정을 느낌 • 고향을 떠올리며 멀리 타향에 떨어져 있음을 깨달음 • 험난한 이동 경로를 통해 세상일의 어려움을 떠올림 • 변방에서 벗어나 다시 궁궐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을 느낌 |
| 견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토 확장에 이바지한 위인(윤관 김종서)의 공적 •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함경의 중요성 • 함경도 지방의 험준한 산들과 아름다운 풍광 |
| 표현상의 특징 | |
| | <p>① 대구법을 통해 리듬감이 드러나도록 표현하고 있음</p> <p>■(ex) 장안(長安)이 어디요 / 옥경(玉京)이 가렸도다</p> <p>■(ex) 시운(時運)의 탓이런가 / 운명에 매였는가</p> <p>② 정철의 「관동별곡」을 연상시키는 구절이 서술되어 있음</p> <p>■(ex) 서생(書生)의 일은 한묵(翰墨)인가 여겼더니 / 백수(白首)의 변방 부임 진실로 의외로다</p> <p>③ 구체적인 지명을 적시하여 이동 과정을 보여주고 있음</p> <p>■(ex) 용흥강(龍興江) 건너와 정평부(定平府) 잠깐 지나 / 만세교(萬歲橋) 앞에 두고 낙민루(樂民樓)에 올라앉아</p> <p>④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가 느낀 감회를 나타내고 있음</p> <p>■(ex) 대궐에서 멀어짐을 뉘 아니 슬퍼하며 / 대궐로 돌아감을 어떻게 기약할까</p> <p>⑤ 여정과 관련된 인물들을 언급하고 이들의 업적을 서술하고 있음</p> <p>■(ex) 윤관 김종서의 풍공(豐功) 위열(偉烈)을 초목이 다 알도다</p> |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③ 독서

[참고] 아래 분석은 강사 본인이 직접 시험을 치르고 실제 읽었던 느낌을 기억하여 그대로 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석의 내용은 실전에서 이 정도 읽어주면 된다는 ‘선’을 여러분의 ‘선’과 맞춰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와중에 이 정보가 왜 중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딱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는 읽었어야 하는 최소한의 ‘선’과 굳이 이해를 하자면 이렇다는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사회[16~20번 지문][할인율과 비용 편익 분석] - 설명을 읽기 전에 먼저 한 번 읽을 것을 추천합니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공공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그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계량적으로 비교하여 평가하는 분석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한다. 그런데 공공사업은 대개의 경우 마무리될 때까지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용 편익 분석을 할 때 ㉡화폐 가치의 할인율을 고려해야 한다.

화폐 가치의 할인율(i)이란 미래 시점의 일정 금액(A)을 현재 시점의 화폐 가치(P)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시중 금리나 민간 자본의 투자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시중 금리가 연 10%인 경우 100만 원을 은행에 예치하면 1년 후에는 11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는 현재의 100만 원과 1년 후의 110만 원이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할인율을 적용하여 미래의 일정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공식과 금리를 적용하여 현재의 예치금을 미래에 받게 될 금액으로 환산하는 공식이 비슷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할인율을 적용하여 1년 후의 일정 금액 A 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공식은 $P = \frac{A}{(1+i)}$ 인데, 사실 이 공식은 i 를 금리, P 를 현재의 예치금, A 를 1년 후에 받게 될 금액으로 간주할 때 성립하는 공식 $A = P(1+i)$ 에서 우변의 $(1+i)$ 를 좌변의 분모로 ㉢옮긴 것과 동일하다.

정부가 할인율을 고려하여 비용 편익 분석을 할 때에는 보통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한다. 먼저 순 현재 가치 법은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미래 시점의 예상 편익과 예상 비용을 모두 현재 가치로 환산한 다음, 편익의 총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총 현재 가치를 뺀 값인 순 현재 가치를 ㉣구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르면 순 현재 가치가 0보다 클 경우에만 사업의 타당성이 있고 순 현재 가치가 클수록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여기서 편익(비용)의 총 현재 가치란 사업 시행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편익(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들의 총 합계이다. 순 현재 가치 법은 순 편익의 크기를 직관적으로 보여 주므로 비용 편익 분석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다.

그런데 순 현재 가치 법을 따르면 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가령 비용의 총 현재 가치가 1,000억 원이고 편익의 총 현재 가치가 1,100억 원인 대안 H와, 비용의 총 현재 가치가 100억 원이고 편익의 총 현재 가치가 150억 원인 대안 K를 비교한다고 하자. 순 현재 가치 법만을 따르면 대안 K의 수익률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안 H의 타당성이 더 높다고 평가할 것이다. 여기서 수익률은 순 현재 가치를 비용의 총 현재 가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순 현재 가치 법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 편익 비용 비(比) 분석이다. 이는 편익의 총 현재 가치를 비용의 총 현재 가치로 나눈 값인 편익 비용 비가 클수록 사업의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내부 수익률 법은 사업의 순 현재 가치가 0이 되도록 만드는 할인율인 내부 수익률을 구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할인율을 미리 정하기 어려울 때 주로 활용한다. 내부 수익률은 물가 상승이나 금융 위기 같은 외부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 수익률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사업 자체의 내재적 가치만을 나타내는데, 내부 수익률이 높을수록 사업의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시중 금리 등에 비해 현저하게 낮지 않으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민간 기업이 비교적 큰 규모의 투자를 결정할 때에도 할인율을 적용하여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데 여기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민간 할인율이라고 하고,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을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회적 할인율은 시중 금리나 민간 자본의 투자 수익률과 동일한 값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은 민간 할인율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할인율을 높게 책정할수록 순 현재 가치와 편익 비용 비가 더 낮게 산정되므로 그 타당성이 저평가된다. 그런데 공공사업은 부의 재분배나 지역 균형 발전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가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할인율을 민간 할인율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이 공공사업의 취지에 맞다고 볼 수 있다.

[실전 읽기]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통상적으로 정부는 공공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그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계량적으로 비교하여 평가하는 분석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한다. 그런데 공공사업은 대개의 경우 마무리될 때까지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용 편익 분석을 할 때 화폐 가치의 할인율을 고려해야 한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경제 지문의 첫 문단은 어떤 영역의 첫 문단보다 중요합니다. 당연히 차분하게 꼭꼭 씹어 읽으면서 내려갑니다. 제시된 부분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차분히 읽으면 밑줄 친 부분들은 들어올 것입니다. 정부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사업을 공공사업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공공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해도 되는 사업인지' 먼저 분석해보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고려하는 것이 화폐 가치의 할인율입니다.

지문을 차분하게 읽은 학생이라면, 할인율이 어떤 개념인지는 파악하지 못했어도 화폐 가치의 할인율은 사업이 시작해서 마무리될 때까지의 기간과 연관된 개념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겠지요.

-----1문단

화폐 가치의 할인율(i)이란 미래 시점의 일정 금액(A)을 현재 시점의 화폐 가치(P)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시중 금리나 민간 자본의 투자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시중 금리가 연 10%인 경우 100만 원을 은행에 예치하면 1년 후에는 11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는 현재의 100만 원과 1년 후의 110만 원이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할인율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시중 금리, 즉 이자율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할인율 공식과 연결시켜 보았을 때,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금리(이자율) 개념을 먼저 이해시켜 놓으면, 할인율 개념을 조금 어렵게 설명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출제자의 사고 과정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친절하게 사례도 제시해 주었으니, 사례를 기반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시중 금리가 연 10%라는 것은, 예치금의 10%를 1년 이자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올해 초에 100만원을 예치하면, 내년 초에는 원금 100만원에 이자 10만원(원금의 10%)을 합친 1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문장의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는 사실 조금 더 복잡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문에 나온 내용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100만원을 은행에 예치해놓는 것만으로 1년 뒤에 110만원이 되었으니, 지금의 100만원과 1년 뒤의 110만원은 같은 가치를 가진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읽은 학생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그렇다면 시중 금리가 연 10%일 때 1년 뒤의 110만원이 가지는 가치는 현재 100만원의 가치와 같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갔다면, 할인율 개념을 이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할인율을 적용하여 미래의 일정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공식과 금리를 적용하여 현재의 예치금을 미래에 받게 될 금액으로 환산하는 공식이 비슷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할인율을 적용하여 1년 후의 일정 금액 A 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공식은 $P = \frac{A}{(1+i)}$ 인데, 사실 이 공식은 i 를 금리, P 를 현재의 예치금, A 를 1년 후에 받게 될 금액으로 간주할 때 성립하는 공식 $A = P(1+i)$ 에서 우변의 $(1+i)$ 를 좌변의 분모로 ⑥ 옮긴 것과 동일하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여기서부터 집중력이 심각하게 흐트러지기 시작한 학생들이 많았을 겁니다. 특히 문과 학생들 중에, 지문에 공식이 제시되면 순간적으로 얼어버리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기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진 학생들이라면, 6번째 줄부터는 가볍게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이런 식의 공식은 문제로 낼 가능성도 적거니와, 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추가적인 정보를 <보기>를 통해서 제공해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문에 분수 공식이 나왔는데 이해가 안 된다면, 변수들이 분모와 분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만 파악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변수들의 위치를 파악한다는 것은 변수들의 비례, 반비례 관계를 파악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문에서는 좌변을 '현재 시점의 화폐 가치(P)'로 하여, 할인율(i)이 분모에, '미래 시점의' 금액(A)이 분자에 위치하고 있네요.

이 말은 미래 시점의 금액이 고정된 상태에서 할인율이 커지면 현재 시점의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할인율이 작아지면 현재 시점의 화폐 가치는 올라간다. 즉 현재 시점의 화폐 가치와 할인율은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2문단

정부가 할인율을 고려하여 비용 편익 분석을 할 때에는 보통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한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같은 층위의 세 가지 정보를 나열할 것이라고 미리 제시해 준 것입니다. 머릿속에 미리 세 개의 틀을 준비해 두고, 정보들을 정리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정보들은 공통점이 있네요? 맞습니다. 셋 다 할인율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할인율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먼저 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시점의 화폐 가치와 할인율이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는 것만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됩니다.

먼저 순 현재 가치 법은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미래 시점의 예상 편익과 예상 비용을 모두 현재 가치로 환산한 다음, 편익의 총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총 현재 가치를 뺀 값인 순 현재 가치를 구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르면 순 현재 가치가 0보다 클 경우에만 사업의 타당성이 있고 순 현재 가치가 클수록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세 가지 정보들 중에 처음 나온 것은 '순 현재 가치 법'에 대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미래 시점의 예상 편익과 예상 비용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고,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현재 가치를 뺀 값인 '순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인데,

이 '순 현재 가치'가 0보다 클 경우에만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 문장을 읽고 '당연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잘 읽고 있는 것입니다. 편익에서 비용을 뺀 값이 순 현재 가치인데, 그 값이 0보다 작다면, 사업에서 발생하는 편익이 비용보다 작다는 것이 되지요. 쉽게 말해서 얻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득보다 실이 많은 사업이라면, 굳이 진행할 이유가 없겠지요.

여기서 편익(비용)의 총 현재 가치란 사업 시행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편익(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들의 총 합계이다. 순 현재 가치 법은 순 편익의 크기를 직관적으로 보여 주므로 비용 편익 분석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당연한 말들입니다. ‘시점’, ‘총 합계’와 같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차분하게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3문단

그런데 순 현재 가치 법을 따르면 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가령 비용의 총 현재 가치가 1,000억 원이고 편익의 총 현재 가치가 1,100억 원인 대안 H와, 비용의 총 현재 가치가 100억 원이고 편익의 총 현재 가치가 150억 원인 대안 K를 비교한다고 하자. 순 현재 가치 법만을 따르면 대안 K의 수익률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안 H의 타당성이 더 높다고 평가할 것이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사례를 통한 한계 제시입니다. 사례를 제시해 주었다는 것은 이 내용을 이해시키겠다는 것과 같으니, 차분하게 내려가면서 하나씩 따져보면 됩니다.

비용의 총 현재 가치가 1,000억, 편익의 총 현재 가치가 1,100억인 대안 H와

비용의 총 현재 가치가 100억, 편익의 총 현재 가치가 150억인 대안 K가 있습니다.

이때 H의 순 현재 가치는 100억, K의 순 현재 가치는 50억입니다. 순 현재 가치 법에 따르면 대안 H의 순 현재 가치가 더 높으니, 대안 H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지문에서는 K의 ‘수익률’이 더 높은 것을 문제 삼으려는 것 같습니다. 이때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으니, 무슨 개념인지도 설명해 주겠지요.

여기서 수익률은 순 현재 가치를 비용의 총 현재 가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수익률은 순 현재 가치를 비용의 총 현재 가치로 나눈 값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안 H와 대안 K의 수익률을 한 번 구해볼까요?

대안 H의 경우 100/1000, 즉 10%의 수익률을 가집니다.

반면 대안 K는 50/100, 50%의 수익률을 보이지요.

1000억을 투자해서 100억, 즉 10%의 이익을 보는 사업과, 100억을 투자해서 50억, 즉 50%의 이익을 보는 사업이 있다면, 당연히 50%의 수익률을 보이는 대안 K를 택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순 현재 가치 법에 따르면 대안 H를 선택하는 게 맞게 되니,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순 현재 가치 법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 편익 비용 비(比) 분석이다. 이는 편익의 총 현재 가치를 비용의 총 현재 가치로 나눈 값인 편익 비용 비가 클수록 사업의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위에서 확인한 순 현재 가치 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편익 비용 비 분석’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정보들 중에 두 번째 정보가 제시되었네요. 함께 확인해 봅시다.

편익 비용 비 = 편익의 총 현재 가치 / 비용의 총 현재 가치

어렵지는 않은 개념이네요. 사실 제시된 정보들만 파악하고 넘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과연 어떻게 ‘편익 비용 비’가 순 현재 가치 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 H의 편익 비용 비는 1100/1000 = 1.1입니다.

대안 K의 편익 비용 비는 150/100 = 1.5이지요.

이렇게 되면 순 현재 가치는 대안 H가 더 높지만, 편익 비용 비는 대안 K가 더 높게 됩니다. 이렇게 편익 비용 비를 따져 보게 되면, 순 현재 가치만 보고 대안을 선택하는 순 현재 가치 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겠지요.

-----4문단

내부 수익률 법은 사업의 순 현재 가치가 0이 되도록 만드는 할인율인 내부 수익률을 구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할인율을 미리 정하기 어려울 때 주로 활용한다. 내부 수익률은 물가 상승이나 금융 위기 같은 외부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 수익률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사업 자체의 내재적 가치만을 나타내는데, 내부 수익률이 높을수록 사업의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시중 금리 등에 비해 현저하게 낮지 않으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세 가지 정보들 중 마지막 정보 ‘내부 수익률 법’이 제시되었습니다.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사업의 순 현재 가치가 0이 되도록 만드는 할인율을 구하는 것인데, 이 내부 수익률 개념은 제시된 정보들만 가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위의 문단들과 다르게 사례를 주지 않은 것 역시, 내부 수익률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라지 않는다는 출제자의 의도가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시된 정보들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 주어졌을 때는, 아주 표면적인 정보들만 파악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 문단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할 정보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내부 수익률은 사업의 순 현재 가치가 0이 되도록 만드는 할인율이다.
2. 내부 수익률은 할인율을 미리 정하기 어려울 때 활용한다.
3. 내부 수익률은 외부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자체의 내재적 가치만을 나타낸다.

-----5문단

한편, 민간 기업이 비교적 큰 규모의 투자를 결정할 때에도 할인율을 적용하여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데 여기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민간 할인율이라고 하고,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을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한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가벼운 대칭 정보입니다. 부드럽게 넘어가면 됩니다.

민간 기업의 사업에 적용되는 할인율 - 민간 할인율 / 정부의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할인율 - 사회적 할인율

기출 분석을 해본 학생들이라면 사회적 할인율이라는 단어가 반갑게 느껴졌을 겁니다. 혹시 사회적 할인율 지문을 못 본 학생들은, 읽기 자료로 뒤에 실어 놓았으니 차분하게 읽어보세요^^

그런데 사회적 할인율은 시중 금리나 민간 자본의 투자 수익률과 동일한 값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은 민간 할인율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할인율을 높게 책정할수록 순 현재 가치와 편익 비용 비가 더 낮게 산정되므로 그 타당성이 저평가된다. 그런데 공공사업은 부의 재분배나 지역 균형 발전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가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할인율을 민간 할인율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이 공공사업의 취지에 맞는다고 볼 수 있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2문단에서 확인했던 내용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할인율을 높게 책정할수록 / 순 현재 가치와 편익 비용 비가 더 낮게 산정된다.

2문단에서 할인율이 높아지면 화폐의 현재 가치가 낮아진다는 것은 이미 확인했지요.

따라서 할인율이 높아지면 비용의 총 현재 가치, 편익의 총 현재 가치가 낮아지므로 순 현재 가치의 값도 작아지게 됩니다.

순 현재 가치의 값이 작아진다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낮아진다는 것과 같으므로, 할인율이 높아지면 사업의 타당성이 더 낮게 측정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공사업은 민간 사업과는 달리 수익률 보다는 부의 재분배나 지역 균형 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익을 창출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다보니, 아무래도 편익이 좀 낮게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예를 들어 학교 건설 같은 사업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학교에서 수입이 나와 봐야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에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게 되면, 그 타당성이 매우 낮게 측정되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사업의 경우 사회적 할인율을 민간 할인율보다 낮게 책정하여, 타당성이 높게 평가되도록 하는 것이 공공사업의 취지에 맞는다는 것입니다.

[추가 기출 분석] 2008학년도 수능 - 사회적 할인율

정부나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현재에 투입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한다. 이 경우 물가 상승, 투자 기회,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할인의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환산을 가능케 해 주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올해의 10억 원은 내년에는 $(1+0.1)$ 을 곱한 11억 원이 되듯이,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의 11억 원의 현재 가치는 $(1+0.1)$ 로 나눈 10억 원이 된다.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에는 대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한다.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할인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장 이자율은 저축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다.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원금을 시장 이자율에 의해 미래에 더 큰 금액으로 볼릴 수 있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시장 이자율만큼 대출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때의 시장 이자율은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의 할인율로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회적 할인율로 간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공사업에 투입될 자본이 민간 부문에서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에서만 높은 수익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공공 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일반적으로 그 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사업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반영한다. 만일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처럼 높게 적용된다면,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밑줄의 글쓴이가 상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장 이자율과 사회적 할인율은 어떻게 관련되는가?
- ② 자본 시장에서 미래 세대의 몫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
- ③ 사회적 할인율이 민간 자본의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④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은 어떤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가?
- ⑤ 공공 부문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과 어떻게 경쟁해야 하는가?

2. ㉠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 ① 민간 투자도 공익성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민간 투자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③ 공공 투자와 민간 투자는 동등한 투자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정부는 민간 기업이 낮은 수익률로 인해 투자하기 어려운 공공 부문을 보완해야 한다.

3. 밑글로 보아 <보기>의 ㉔에 대한 판단으로 타당한 것은?

< 보 기 >

한 개발 업체가 어느 지역의 자연 환경을 개발하여 놀이동산을 건설하려고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연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여 놀이동산의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중시하여 찬성하는 사람들로 갈리어 있다. 그래서 개발 업체와 지역 주민들은 ㉔놀이동산으로부터 장기간 파급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이익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을 계산해 보기로 하였다.

- ① 사업의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는 주민들은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② 후손을 위한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주민들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③ 개발 업체는 놀이동산 개발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④ 놀이동산이 소득 증진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⑤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고 판단되면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추가 기출 분석 지문 분석 및 정답 해설] 2008학년도 수능 - 사회적 할인율

정부나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현재에 투입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한다. 이 경우 물가 상승, 투자 기회,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할인의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환산을 가능케 해 주는 개념이 할인율(C)이다.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C)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올해의 10억 원은 내년에는 $(1+0.1)$ 을 곱한 11억 원이 되듯이,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의 11억 원의 현재 가치는 $(1+0.1)$ 로 나눈 10억 원이 된다.

[너와 나의 실전 독해]

- ① 첫 문단은 무조건 차분히 읽는다. 속도를 줄여야 한다.
- ② 특히 경제 지문의 첫 문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는 개념과 관계이다. 첫 문단에 핵심 개념이 나오면 무조건 챙겨야 한다.
- ③ 비용과 이익을 비교하여 사업할지 말지 결정하나보다.
- ④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하게 해주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차분하게 읽고 이해가 바로 되면 좋고, 아니면 일단 내려간다.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개념 정보(C)는 무조건 중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을 어렵게만, 혹은 추상적으로만 주지는 않는다. 두어 번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일단 내려가자. 같은 말을 계속 써 주든 사례를 들어주든 할 거다.
- ⑤ 이자율의 역이란다. 이 말도 무슨 말인지는 모를 거다.
- ⑥ 식으로 바꿀 수 있는 말은 무조건 적어둔다. 어차피 물어보니까. 숫자 그대로 쓰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쓸 데가 별로 없다. 각각이 무엇인지 기록해 두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즉 식을 일반화해두면 좋다.

1) 현재 10억 = 내년 11억 / $1+0.1$ (하수)

2) 현재 = 내년 / $1+할$ (중수)

3) 결국 할인율과 현재가치의 관계를 묻겠구나(고수/기출 분석 많이 하면)

지문 읽기 단계에서 3)까지 가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2)까지라도 충실히 해두면 분명히 애를 묻게 되어 있다. 3월 교육청 가감차 방식에서도 우리가 느꼈듯이!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에는 대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한다.(C)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할인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D)

[너와 나의 실전 독해]

- ① 사회적 할인율의 개념은 역시 챙기자. 공공사업일 때다. 이게 먼저다.
- ② 초점이 조금 바뀌었다. 혹은 구체적이 되었다는 느낌은 받았으면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할인율 → 사회적 할인율로 중심 이동이 일어난 것이다. 이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돌아갈 자리가 결정되니까.
- ③ 여기까지 보이면 좋겠지만, 사실 큰 의미는 없다. 그러나 설명은 하겠다. 결국 지문의 주제는 사회적 할인율이다. 따라서 첫 문단은 사전 정보가 된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우리는 2문단부터 읽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1문단부터 읽을 것이므로 사실 상 충실히 읽고 내려온 상태라 사전 정보(B)로 파악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듯하다.
- ④ 방향 정보(D)는 챙기자. 시장 이자율과 민간 자본의 수익률 내용이 나오겠다.

「시장 이자율은 저축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다.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원금을 시장 이자율에 의해 미래에 더 큰 금액으로 볼릴 수 있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시장 이자율만큼 대출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때의 시장 이자율은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의 할인율로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회적 할인율로 간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공사업에 투입될 자본이 민간 부문에서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에서만 높은 수익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와 나의 실전 독해]

- ① 경제적 배경지식이 없다면 3문단은 정말 1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 ② 실전에서는 이런 문단이, 이런 문장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이렇게 갑자기 이해가 안 되거나 말이 어려우면, 다시 한 번 속도를 줄여 읽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일단 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꼭 이걸 연습해보되, 이해가 되는 상황까지 설명은 해보겠다.
- ③ 시장 이자율 설명이다. 처음 두 문장은 그냥 흘러가듯 읽을 것이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특별히 없다. '이때의 시장 이자율은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의 할인율로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부터 갑자기 문제가 된다.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게 된다.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한 번 더 읽어보고 모르겠으면 일단 내려 내려가라.

[참고] 쉽게 말해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하여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저축을 할 수도 있다. 저축을 하면 필연적으로 이자를 받게 되는데, 투자를 하게 되면 기회비용 차원에서 이자를 못 받게 된다. 따라서 못 받게 되는 이자율을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것이 시장이자율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고자 하는 주장의 견해다.(읽고 이해하면 됨. 지문에서는 모를 수도 있음)

- ④ 민간 자본의 수익률이다. 그래도 각각 설명했다는 것 정도는 흐름 상 알아야 한다. 그러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은 아예 말이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 쉽게 말해 공공사업에 투자할 거, 민간사업에 투자하면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공공사업에 투자하게 되면 그만큼 민간사업에 투자했을 때만큼 얻지 못하는 이윤을 기회비용 차원에서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실전에서는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될 것이다.

- ⑤ 어쨌든 우리는 당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시험장에서 더욱 그렇다. 일단 경제는 개념과 관계이다. 1문단에서 할인율 개념 챙기면서 식 써놨고, 그 와중에 사회적 할인율은 이해를 했다. 시장 이자율, 민간 자본 수익률 애긴지는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일단 한 번 더 읽어보고 내려간다.

그러나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①공공 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일반적으로 그 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사업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반영한다. 만일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처럼 높게 적용된다면,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너와 나의 실전 독해]

- ① 앞에 3문단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4문단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시장 이자율이건 민간 자본의 수익률이건 사회적 할인율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② ① 문장은 앞에 3문단이 완벽하게 이해되면 바로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다. 실전이라면 일단 그냥 흘러가는 것이 낫겠으나 굳이 설명을 하면, 어차피 수익률 높으면 민간에서 다 투자할 건데, 굳이 정부가 나서서 그런 데에다 투자할 필요 있는가. 정도의 내용이다.
- ③ 어쨌든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투자의 결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데, 사회적 할인율이 높게 적용되면, 미래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는 거라고 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는 무조건 챙겨야 한다. 필자는 사회적 할인율은 높게 적용되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정답 해설 및 사고 과정 정리]

1. ④

| [사고 과정 정리] - 선택지의 근거 작성(최대한 간결한 사고) | |
|-------------------------------------|--|
| 정답 (④) | 이 글의 핵심어는 사회적 할인율로 볼 수 있다. 글쓴이는 사회적 할인율이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며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공적 차원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사회적 할인율을 결정할 때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과 같은 사적 부문에 적용되는 요소들을 고려하지는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과 그 근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사회적 할인율은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수준에 대해 언급한 ④가 글쓴이의 핵심적 질문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

2. ④

| [사고 과정 정리] - 수업 시간 배운 내용 복습 | |
|--|---|
| - (생략된) 전제 추론 : 지문을 읽을 때 없어도 되는 말, 즉 ㉠과 같은 말이거나 같은 방향을 찾으면 된다. 1) ㉠의 말이 쉬울 때 : (소거)가 빠르다. 2) ㉠의 말이 어려울 때 : (답만 고르는 것)이 명확하다. 만약 ㉠이 이해가 안 될 경우, (㉠을 쓰면서) 같은 말, 혹은 같은 방향의 말을 찾는다. | |
| 정답 (⑤) | 수업 시간에 생략된 전제 얘기는 했다. 그러나 한 번 더 얘기하면 생략된 전제는 사실 상 지문에 없어도 글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따라서 전제 추론은 같은 말, 혹은 같은 방향의 말을 찾으면 된다. 다만,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지문에 있는 말)이 어려운 경우다. 그 말이 쉬우면 바로 말도 안 되는 몇 가지 지워버리고 따지면 되는데, 이 지문의 ㉠처럼 어려우면 가장 비슷한 말 하나를 고르는 게 훨씬 빠르다. 오답 선택지도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두 개 중에 고민되는 상황이라면 ㉠ 문장을 차분히 읽으며 다시 써 보라. 이거랑 똑같거나 거의 유사한 내용이 답이다. 지문 읽으면서 3문단 이해한 사람들은 답이 쉽다. 그러나 3문단이 이해되지 않아도 풀 수 있다. 이때는 그 문장을 써 본다. ㉠공공 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정리하면, 수익률이 높다 / 민간 투자가 가능하다 / 정부 투자할 필요 없다. ㉡정부는 민간 기업이 낮은 수익률로 인해 투자하기 어려운 공공 부문을 보완해야 한다. 정리하면, 수익률이 낮다 / 민간 투자가 어렵다 / 정부가 보완해야 한다. 사실상 ㉡와 ㉠은 같은 말이다. |

3. ②

| | |
|--|--|
| [사고 과정 정리] - 선택지의 근거 작성(최대한 간결한 사고) [기억 1] 사례는 (개념)을 물어본다. [기억 2] 식이 나오면 대부분 <보기> 문제와 관련된다. [기억 1 + 기억 2] 할인율(개념) = ((공식) 현재 = 미래 / 1 + 할인율) 결국, 중요하면 물어본다. 할인율과 현재가치의 관계를 묻는 것이다. | |
| [참고] 한 가지, 실제 시험 때 보이기는 어렵겠지만, 한 개발 업체가 놀이공원을 만드는 경우이므로, 이것은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는 상황이 아닌, 그냥 할인율이 적용되는 상황이다. 어쨌든 식을 잘 쓰면 편하다. | |

| | | |
|---|-----------|--|
| ① | X | 반대 / 낮은 할인율 할인율을 다 이해하고 풀어도 풀 수 있지만, 우리는 식을 이용하자. 할인율이 낮으면 분모가 작으니까 현재 가치가 크다는 얘기가. 즉 현재 가치가 크면 투자를 하지, 투자를 반대하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짝이 안 맞는다고 해 두자. 땡! |
| ② | O (정답) | 반대 / 높은 할인율 할인율이 높으면 분모가 작으니까 현재 가치가 작다는 얘기가. 즉 현재 가치가 작으면 투자를 안 하지, 투자를 찬성하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게 답이다. |
| ③ | X | 찬성 / 높은 할인율 할인율이 높으면 분모가 크니까 현재 가치가 작다는 얘기가. 즉 현재 가치가 작으면 투자를 안 하지, 투자를 찬성하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짝이 안 맞는다고 해 두자. 땡! |
| ④ | X | 찬성 / 높은 할인율 할인율이 높으면 분모가 크니까 현재 가치가 작다는 얘기가. 즉 현재 가치가 작으면 투자를 안 하지, 투자를 찬성하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짝이 안 맞는다고 해 두자. 땡! |
| ⑤ | X | 지역 경제 활성화되는 시간 길면 / 낮은 할인율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기만 하면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으나, 선택지의 의도에 따라가자. 지역 경제 활성화되는 시간이 길면 아무래도 투자에 망설이게 될 거다. 어쨌든 출제 의도대로라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반대하게 될 테니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고, 어쨌든 아무리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시간이 길어진다고 했으니까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

오랜만에 분석지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잘들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여름에 개도 안 걸린다는 감기에 걸려 고생중입니다. A형 간염이 유행한대서 수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A형 간염 주사를 맞았는데 감기는 피할 수 없었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 특히 이거 읽은 모든 분들이 수능 날까지 조금이라도 아프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5월이네요. 이렇게 원고를 작성하다보면 밖에 날씨가 참 좋아요. 이런 날에는 나가서 조금 놀아줘야 하는데.(저는 개인적으로 야구장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더 하겠지요. 이래서 5월이 참 힘듭니다. 중간고사도 끝나고 날씨도 좋고, 심지어 가정의 달이네요. 슬슬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는 그런 때일 겁니다. 내년 5월에는(갑자기?)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놀 수 있을 테니, 올해에는 여러분도, 저도 모두들 버팁시다. 그냥 이렇게 같은 시간을 함께 흘러가는 겁니다. 저도 밖에 나가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더 좋은 분석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열심히 살아내느라, 흘러가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힘내요.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성취한다.’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통상적으로 정부는 공공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그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계량적으로 비교하여 평가하는 분석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한다. 그런데 공공사업은 대개의 경우 마무리될 때까지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용 편익 분석을 할 때 화폐 가치의 할인율을 고려해야 한다.

화폐 가치의 할인율(i)이란 미래 시점의 일정 금액(A)을 현재 시점의 화폐 가치(P)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시중 금리나 민간 자본의 투자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시중 금리가 연 10%인 경우 100만 원을 은행에 예치하면 1년 후에는 11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는 현재의 100만 원과 1년 후의 110만 원이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할인율을 적용하여 미래의 일정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공식과 금리를 적용하여 현재의 예치금을 미래에 받게 될 금액으로 환산하는 공식이 비슷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할인율을 적용하여 1년 후의 일정 금액 A 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공식은 $P = \frac{A}{(1+i)}$ 인데, 사실 이 공식은 r 을 금리, P 를 현재의 예치금, A 를 1년 후에 받게 될 금액으로 간주할 때 성립하는 공식 $A = P(1+i)$ 에서 우변의 $(1+i)$ 를 좌변의 분모로 옮긴 것과 동일하다.

정부가 할인율을 고려하여 비용 편익 분석을 할 때에는 보통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한다. 먼저 순 현재 가치 법은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미래 시점의 예상 편익과 예상 비용을 모두 현재 가치로 환산한 다음, 편익의 총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총 현재 가치를 뺀 값인 순 현재 가치를 구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르면 순 현재 가치가 0보다 클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고 순 현재 가치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여기서 편익(비용)의 총 현재 가치란 사업 시행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편익(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들의 총 합계이다. 순 현재 가치 법은 순 편익의 크기를 직관적으로 보여 주므로 비용 편익 분석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다.

그런데 순 현재 가치 법을 따르면 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가령 비용의 총 현재 가치가 1,000억 원이고 편익의 총 현재 가치가 1,100억 원인 대안 H와, 비용의 총 현재 가치가 100억 원이고 편익의 총 현재 가치가 150억 원인 대안 K를 비교한다고 하자. 순 현재 가치 법만을 따르면 대안 K의 수익률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안 H의 타당성이 더 높다고 평가할 것이다. 여기서 순 수익률은 순 현재 가치를 비용의 총 현재 가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순 현재 가치 법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 편익 비용 비(比) 분석이다. 이는 편익의 총 현재 가치를 비용의 총 현재 가치로 나눈 값인 편익 비용 비가 클수록 사업의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내부 수익률 법은 사업의 순 현재 가치가 0이 되도록 만드는 할인율인 내부 수익률을 구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할인율을 미리 정하기 어려울 때 주로 활용한다. 내부

수익률은 물가 상승이나 금융 위기 같은 외부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 수익률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사업 자체의 내재적 가치만을 나타내는데, 내부 수익률이 높을수록 사업의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시중 금리 등에 비해 현저하게 낮지 않으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민간 기업이 비교적 큰 규모의 투자를 결정할 때에도 할인율을 적용하여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데 여기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민간 할인율이라고 하고,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을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회적 할인율은 시중 금리나 민간 자본의 투자 수익률과 동일한 값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은 민간 할인율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할인율을 높게 책정할수록 순 현재 가치와 편익 비용 비가 더 낮게 산정되므로 그 타당성이 저평가된다. 그런데 공공사업은 부의 재분배나 지역 균형 발전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가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할인율을 민간 할인율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이 공공사업의 취지에 맞다고 볼 수 있다.

16. 뒷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부 수익률은 미래의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투자 수익률이다.
- ② 공공사업의 수익률과 편익 비용 비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 ③ 비용 편익 분석은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에만 거치는 과정이다.
- ④ 할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분석한 경우, 편익 비용 비가 1인 사업의 순 현재 가치는 0이다.
- ⑤ 할인율을 미리 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내부 수익률을 할인율로 활용하여 사업의 순 현재 가치를 산정한다.

1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화폐의 현재 가치가 해마다 하락하는 비율이다.
- ㉡ 화폐 가치가 점차 낮아진다는 것을 반영한 개념이다.
- ㉢ 민간 자본의 투자 수익률과 동일한 값으로 책정되기도 한다.
- ㉣ 순 현재 가치 법에서 높게 책정할수록 사업의 타당성이 더 낮게 평가될 수 있다.
- ㉤ 편익 비용 비 분석에서 낮게 책정할수록 편익 비용 비가 대체로 더 높게 산정된다.

A → P 환산(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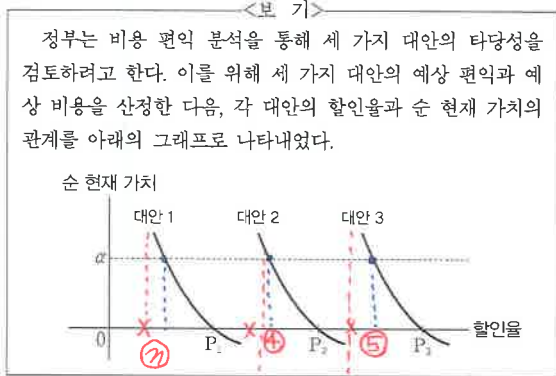
11-㉡ 공식

16-㉣ 순 현재가치 = 편익총 현재가치 - 비용총 현재가치, 순현재가치 α 타당성

16-㉡ 수익률 = 순 현재가치 / 비용총 현재가치

편익비용비 α 타당성, "편익총 현재가치" / "비용총 현재가치"

1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대안 1, 2, 3은 모두 할인율을 높게 책정할수록 순 현재 가치가 낮아지는군. 6분단 공식
- ② 순 현재 가치를 a로 만드는 대안 1의 할인율은 대안 2의 할인율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군. → 대안 1, 2에서 순현재가치 양수
- ③ 할인율을 P₁보다 작은 값으로 채택한 경우 대안 1, 2, 3의 편익 비용 비는 모두 1보다 크겠군. → 대안 순현재가치 음수
- ④ 시중 금리가 P₁과 P₂ 사이에서 형성된 경우 내부 수익률 법에 따르면 대안 1이 대안 2보다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겠군. (내부 수익률 높을수록 높음 타당성)
- ⑤ 할인율을 P₂보다 크고 P₃보다 작은 값으로 채택한 경우 순 현재 가치 법에 따르면 대안 2는 대안 3과 달리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군. 대안 2 순현재가치 음수, 대안 3 순현재가치 양수

순현재가치 > 편익 > 비용 > 편익/비용비

19. 윗글을 참고할 때, ㉔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회적 할인율을 시중 금리보다 높게 책정해야 부의 재분배와 같은 공공사업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민간사업의 비추는 낮게
- ② 사회적 할인율을 민간 자본의 투자 수익률보다 낮게 책정해야 공공사업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사회적 할인율을 민간 할인율보다 높게 책정하면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공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사회적 할인율을 민간 할인율보다 낮게 책정하면 미래 시점의 예상 편익이 증가하므로 공공사업의 타당성이 높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미래 시점의 예상 편익이 증가하므로 공공사업의 타당성이 높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 ⑤ 사회적 할인율을 민간 할인율보다 낮게 책정해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공공사업의 예상 비용이 줄어 순 현재 가치가 높게 산정되기 때문이다.

비용편익분석시 예상편의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 미래의 예상편의, 예상비용 자체에는 변화가 없다.

20. 문맥상 ㉑~㉔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㉑: 증여(贈與)할 ② ㉒: 전달(傳達)한
- ③ ㉑: 도출(導出)하여 ④ ㉒: 구분(區分)한
- ⑤ ㉑: 소유(所有)한다

[21~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 줄거리] 어머니의 집에 아내와 함께 내려간 '나'는 잠결에 어머니와 아내의 대화를 엿듣게 된다. 그리고 20여 년 전, 집안이 파산하여 남에게 넘어간 집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마지막으로 하룻밤 재우고 새벽에 배웅해 주던 일을 떠올린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의 머릿속에도 마침내 그날의 정경이 손에 닿을 듯 역력히 떠올랐다. 어린 자식 놈의 처지가 너무도 딱해서였을까. 아니 어쩌면 노인 자신의 처지까지도 그 밖엔 달리 도리가 없었을 노릇이었는지도 모른다. 동구 밖까지만 바라다주겠다던 노인은 다시 마을 뒷산 잣길까지 나를 좀 더 바래 주마 우겼고, 그 잣길을 올라선 다음엔 새 신작로가 나설 때까지 산길을 함께 넘어가자 우겼다. 그럴 때마다 한차례씩 애 시린 실랑이를 치르고 나면 노인과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있을 수 없었다. 아닌 게 아니라 날이라도 좀 밝은 다음이었으면 좋았겠는데, 날이 밝기를 기다려 동네를 나서는 건 노인이 나 나나 생각을 안 했다. 그나마 그 어둠을 타고 마을을 나서는 것이 노인이나 나나 마음이 편했다. 노인의 말마따나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 내가 미끄러지면 노인이 나를 부축해 일으키고, 노인이 넘어지면 내가 당신을 부축해 가면서, ㉑ 그렇게 말없이 신작로까지 나섰다. 그러고도 아직 면소 차부까지는 길이 한참이나 남아 있었다. 나는 결국 그 면소 차부까지도 노인과 함께 신작로를 걸었다.

아직도 날이 밝기 전이었다.

하지만 그러고 우리는 어찌 되었던가.

나는 차를 타고 떠나갔고, 노인은 다시 어둠 속의 눈길을 되돌아서야 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거기까지뿐이었다.

노인이 그 후 어떻게 길을 되돌아갔는지는 나로서도 아직 들은 바가 없었다. 노인을 길가에 혼자 남겨 두고 차로 올라선 그 순간부터 나는 차마 그 노인을 생각하기가 싫었 [A]고, 노인도 오늘까지 그날의 뒷배기는 들려준 일이 없었다. 그런데 노인은 웬일로 오늘사 그날의 기억을 끝까지 돌이키고 있었다.

(중략)

“어떻게 하기는야. 뉘이 나간 사람마냥 어둠 속에 한참이나 찾길만 바라보고 서 있을 수밖에야……. 그 허망한 마음을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있을거냐…….”

노인은 여전히 옛 얘기를 하듯 하는 그 차분하고 아득한 음성으로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나갔다.

“한참 그러고 서 있다 보니 찬바람에 정신이 좀 되돌아오더구나. 정신이 들어 보니 갈 길이 새삼 허망스럽지 않았잖나. 지금까지 그래도 저하고 나하고 들어서 함께 헤쳐 온 길인데 이참에는 그 길을 늙은 것 혼자서 되돌아서려니……. 거기다 아직도 '날은 어둡지야……. 그대로는 암만해도 길을 되돌아설 수가 없어 차부를 찾아 들어갔더니라. 한 식경이나 차부 안 나무 걸상에 웅크리고 앉아 있으려니 그제사 동녘 하늘이 흰해져 오더구나……. 그래서 또 혼자 서두를 것도 없는

$$P(S|T) = \frac{P(S)P(T|S)}{P(T)}$$

↑ 사전확률
↑ 우도(여기서는 0.9)
↑ 알고싶은 것

$$= P(T \& S) + P(T \& \sim S)$$

14

국어 영역

홀수형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베이즈 정리는 조건부 확률에 관한 수학적 정리로, 통계학 등에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통찰을 낳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여기서 조건부 확률이란 어떤 조건 아래에서 특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말한다. 가령 주사위 던지기에서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1/2이고 3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1/2이다. 이때 '홀수의 눈이 나왔다는 조건 아래에서 3 이하의 눈이 나왔을 확률'이 조건부 확률이다. 그런데 주사위에서 홀수의 눈은 1, 3, 5이고 이 중 3 이하의 눈은 1과 3이므로 우리는 간단한 어림잡자만으로도 위의 조건부 확률이 2/3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 1/2을 이 조건부 확률 2/3에 곱하면, 홀수인 동시에 3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이 된다는 것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여시)

이러한 내용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자. 그리고 위의 조건부 확률을 $P(A|B)$ 로 표기한다고 하자. 그러면 홀수인 동시에 3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P(A \& B)$ 는 $P(B)$ 와 $P(A|B)$ 의 곱이다. 그런데 $P(A \& B)$ 는 또한 3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P(A)$ 와 3 이하의 눈이 나왔다는 조건 아래에서 홀수의 눈이 나왔을 확률 $P(B|A)$ 를 곱한 값이기도 하다. 따라서 $P(B)P(A|B) = P(A)P(B|A)$ 라는 등식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베이즈 정리이다.

베이즈 정리를 이용하면 둘 중 하나의 조건부 확률이 알려져 있는 경우, 다른 조건부 확률을 알 수 있다. 가령 $P(A|B)$ 가 알려져 있는 경우, $P(B|A)$ 는 $\frac{P(B)P(A|B)}{P(A)}$ 가 된다. 이때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확률을 사전 확률, 이미 알려져 있는 조건부 확률을 우도(尤度), 베이즈 정리를 통해 알고자 하는 조건부 확률을 사후 확률이라고 한다. 다만 베이즈 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사건의 확률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각 사건의 확률은 0보다 커야 한다. 둘째, 한 사건이 벌어질 확률과 그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 확률의 합은 1이다. 셋째, 한 사건의 확률은 그 사건과 다른 사건이 동시에 벌어질 확률과 그 사건은 벌어지고 다른 사건은 벌어지지 않을 확률의 합과 같다. 넷째, $P(A)$ 는 $P(A \& B)$ 와 $P(A \& \sim B)$ 의 합과 같다.

이제 어떤 질환 S를 앓고 있는지를 판정하는 ㉠ 정확도 90%의 진단기가 있다고 하자. 이때 정확도가 90%라는 것은 S를 실제로 앓고 있는 사람들을 검사했을 때 진단기가 양성 판정을 내리는 확률이 90%라는 뜻이다. 이는 S를 앓지 않는 사람들을 검사했을 때 진단기가 양성 판정을 내리는 확률이 10%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이 이 진단기에 의해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정말로 그가 질환 S에 걸렸을 확률이다.

이제 S의 발병률을 $P(S)$ 라고 하고 진단기가 임의의 사람을 검사했을 때 양성 판정을 내릴 확률을 $P(T)$ 라고 하자. 그리고 $P(S)$ 와 $P(T)$ 는 위에 제시된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하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질환 S를 앓고 있다는 조건 아래에서 그를 진단했을 때 양성 판정이 나오는 조건부 확률을 $P(T|S)$ 로 표

시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알고 싶은 것은 $P(S|T)$ 이다. 베이즈 정리에 따르면 이 확률은 $\frac{P(S)P(T|S)}{P(T)}$ 이다. $P(T|S)$ 는 0.9로 알려진 값이고 $P(S)$ 는 통계 자료를 통해 경험적으로 알 수 있고 $P(T)$ 는 위의 조건에 따라 $P(T \& S)$ 와 $P(T \& \sim S)$ 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이때 $P(T \& S)$ 는 사람이 질환 S를 앓는 동시에 양성 판정을 받을 확률로, 질환 S에 걸릴 확률 $P(S)$ 와 누군가가 질환 S를 앓고 있다는 조건 아래에서 그를 진단했을 때 양성 판정이 나올 확률 $P(T|S)$ 를 곱한 값이고, $P(T \& \sim S)$ 는 사람이 질환 S를 앓지 않은 동시에 양성 판정을 받을 확률로, 사람이 질환 S에 걸리지 않을 확률 $P(\sim S)$ 와 누군가가 질환 S에 걸리지 않았다는 조건 아래에서 그를 진단했을 때 양성 판정을 받을 확률 $P(T|\sim S)$ 를 곱한 값이다. 따라서 발병률 $P(S)$ 를 알면 $P(S|T)$ 를 구할 수 있다.

3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베이즈 정리는 통계학 등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는 수학적 정리이다.
- ② 어떤 질환의 발병률처럼 통계적으로 알 수 있는 확률을 우도라고 한다. = 사전확률
- ③ 베이즈 정리를 통해 사후 확률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④ 베이즈 정리는 알려진 조건부 확률을 활용하여 알려지지 않은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데 쓰일 수 있다.
- ⑤ 주사위를 던져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과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경우에는 어느 사건을 조건으로 하더라도 조건부 확률이 0이다. → 홀수의 눈이 나왔다는 조건 아래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 = 0. 짝수 " " 홀수 " = 0

40. 윗글의 ㉠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의 정확도가 80%로 수정되면, ~~X~~가 0.8로 바뀐다.
- ② ㉠에서 정확도란 S를 앓지 ~~않~~ 사람들은 검사했을 때 양성 판정이 나오는 확률을 의미한다. ~~않~~
- ③ ㉠으로 임의의 사람을 검사했을 때 양성 판정이 나올 확률은 $P(S)P(T|S)$ 와 $P(\sim S)P(T|\sim S)$ 의 합이다. → $P(S) \times P(T|S)$
- ④ S의 발병률과 ㉠의 정확도인 0.9를 곱한 값은 S를 앓고 있는 사람을 검사했을 때 양성 판정이 나올 확률이다. → $P(T|S)$
- ⑤ ㉠으로 S를 앓지 않는 사람들을 검사했을 때 양성 판정이 나올 확률과 S의 발병률을 곱한 값은 $P(T \& \sim S)$ 이다.

$$P(T|\sim S) \times P(S)$$

→ 임의의 사람 검사시 양성판정이 나올 경우의 확률 = $P(T)$

$$= P(T \& S) + P(T \& \sim S)$$

$$= P(S)P(T|S) + P(\sim S)P(T|\sim S)$$

41.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P(X)=0.6, P(Y)=0.4$

어떤 기업은 두 공장 X와 Y에서 동일한 제품을 각각 60%와 40%의 비율로 생산한다. 공장 X의 불량품 생산 비율은 5%, 공장 Y의 불량품 생산 비율은 10%이다. 단, 임의로 고른 제품이 X와 Y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을 각각 $P(X)$, $P(Y)$ 라고 하고 임의로 고른 제품이 불량품일 확률을 $P(D)$ 라고 한다. 그리고 $P(X)$ 와 $P(D)$, 혹은 $P(Y)$ 와 $P(D)$ 는 베이즈 정리를 적용하기 위한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 ① 임의로 고른 제품이 불량품이 아닐 확률은 알 수 없었군.
 ② 임의로 고른 제품이 공장 X에서 생산된 제품일 확률은 조건부 확률 $P(X|D)$ 이겠군. $=P(X)=0.6$
 ③ 임의로 고른 제품이 공장 Y에서 생산된 제품이었을 때 이 제품이 불량품일 확률은 0.4와 0.1의 곱이겠군.
 ④ 임의로 고른 제품이 공장 X에서 생산된 제품인 동시에 불량품이 아닐 확률은 $P(\sim Y)P(\sim D|\sim Y)$ 이겠군.
 ⑤ 임의로 고른 제품이 불량품이었을 때 이 제품이 공장 Y에서 생산된 제품일 확률은 $P(Y|D)$ 를 $P(D)$ 로 나눈 값이겠군. $\rightarrow P(Y|D)=P(Y)P(D|Y)$

$P(D|X)=0.05$
 $P(D|Y)=0.1$

$P(D|Y) = \frac{P(Y \& D)}{P(Y)}$

$P(X \& \sim D) = P(X)P(\sim D|X)$

$P(X) + P(Y) = 1$ 이므로 $P(X) = P(\sim Y)$

42.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우리는 서울역에 내려 전철을 타고 집에 갔다.
- ② 선반 위에서 상자를 내려 천천히 밖으로 나갔다.
- ③ 이 지역은 강우가 산발적으로 내리는 경향이 있다.
- ④ 그녀는 땅거미가 내리는 강둑에서 엎드려 울고 있었다.
- ⑤ 형사는 그 남자의 친구가 범인일 것이라고 단정을 내렸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 연당 물오리란 놈 일곱 번 상처(喪妻)하고 남녀 간 혈육 없어 후처(後妻)를 구하더니 까투리 상부(喪夫)한 소식을 알고 통혼(通婚)도 아니 하고 혼인길을 차릴 적에 ㉠ 웅웅명안(雛雛鳴雁) 기러기로 안부장이* 삼아 두고, 관관저구(關關雎鳩) 골수리로 함진아비 삼아 두고, 기활(氣活) 좋은 황새로 후행(後行)을 삼아 두고, 소리 큰 왜거리로는 길잡이로 삼아 두고, 맵시 있는 호반새로 전갈하인 삼았구나. 이날 호반새 들어와서 이른 말이, “까투리 신부 계신가? 우리 신랑 들어와네.”

까투리 울다 하는 말이, “아무리 과부가 만만한들 궁합도 아니 보고 억지 혼인하라 하오?”

오리 하는 말이, “과부 혼자 만나는데 예절 보고 사주 볼까? 신부 신랑 들이 자연 궁합 절로 되니라. 택일(擇日)이나 하여 보자. 일상생기 이중천의 삼하절체 사중유혼 오상화해 육중복덕*일이요, 천덕일덕이 합하였으니 오늘 밤이 으뜸이라. 이성지합(二姓之合)은 백부지원(百福之源)이니* 잠말 말고 조금 자세.”

까투리 웃고 대답하되, “자네는 남자라고 음침한 말 제법 하네.”

오리란 놈 하는 말이, “이내 호강 들어 보소 ㉡ 영주봉래(瀛州蓬萊) 청강수(淸江水)의 모든 신선 배를 타고 완월장취(玩月長醉)* 하는 양을 역력히 구경하고 소상동정(瀟湘洞庭)* 너른 물에 홍료백빈(紅蓼白蘋)* 집을 삼아, 오락가락 노닐면서 은린옥척(銀鱗玉尺) 좋은 생선 식량대로 장복(長服)하니 천지간의 좋은 생애 물밖 에 또 있는가?”

까투리 하는 말이, “오리 육지 경치 들어 보소 상평하평(上平下平) 넓은 들의 두태서숙(豆太黍粟)* 풍년 들어 황금같이 이조 곡식 여기저기 쌓아 두고, 낙양동춘(洛陽冬春) 봄바람에 이화도화(梨花桃花) 만발하고 만화방창(萬化方輻) 꽃이 피고 근자 기상 연꽃이며, 전국충신(戰國忠信) 한일화며, 봉래신선(蓬萊神仙) 해당화며, 떨기떨기 무궁화, 더덕더덕 산초나무, 금의 공자 피꼬리와 울음 좋은 삐꼭새 개의행장(改衣行裝) 재촉하고, 춤 잘 추는 흑두루미 홍문연(鴻門宴) 잔치 적에 검무(劍舞)를 비웃는 듯, 활 잘 쏘는 호반새는 무반 공부 급제한 듯.”

㉢ 까투리 현 의복 갈아입고 앞 연당으로 시집온다.

(중략)

까투리 얘기 배어 입맛이 전혀 없다.
 “술어 붓어 너를 주랴, 주럭 깎저기 너를 주랴, 은어 골부리 회를 치랴, 울챙이로 탕을 하고 은린옥척(銀鱗玉尺) 반찬 삼고”
 “입맛 없어 그것도 싫소”
 “별주부를 삶아 주랴? 그것을 먹으면 수태(受胎)하기 쉬우니라.”
 얼싸얼싸 생생한 팔 남매를 낳았구나. 잔치 맛이 절로 난다.
 “고랑진미(膏粱珍味) 입맛대로 각색으로 들여라.”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성취한다.”